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파괴하는 죄

에이즈 확산의 주범이며 분명한 죄, '한국교회 대규모 집회'

"여러분을 사랑해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동성애는 에이즈 고(高) 위험군,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28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 모인 기독교인과 시민들은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뜨거운 햇볕 탓에 땀이 비 오듯 하지만 구호는 멈추지 않았다. 자녀들을 동성애로부터 지켜달라고 부르짖는 동성기도가 한동안 이어졌다.

이들은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본부장 소강석 목사)가 개최한 '동성애조장 중단 촉구 한국교회교단 연합 예배·국민대회'에 참석한 이들이다. 맞은편 서울광장에서는 성소수자들의 행사인 '2015 제16회 퀴어문화축제'의 퍼레이드가 열렸다.

이날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에이즈 확산의 주범인 동성애는 신앙·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분명한 죄"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회장은 "퀴어축제와 같은 반성경적이고 음란한 문화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저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하며, 그들이 돌아온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교연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는 대국민메시지를 낭독하고, 예정됐던 전 총회장 최낙중 목사는 '순리를 역리로 쓰는 사람들'(롬 1:26~27)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그는 지난해 요세미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의 반동성애법 제정을 예로 들어 "당시 무세베니 대통령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만일 반동성애법을 제정하면 연 4억 달러씩 하던 원조를 끊겠다'고 경고한 상황에서 '우간다를 지켜주고 구원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그해 10월 동성애 금지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무세베니 대통령은 동성애로 인해 가정, 사회,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목격했다"며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55개 나라들 중에 이미 38개 나라가 반동성애법을 제정해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지난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애 결혼을 합헌으로 선포했다며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로 파멸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교회 동성애 확산 저지 대국민 메시지

우리나라는 반만년 찬란한 역사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국민입니다. 오천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의 고유한 문화와 미풍양속을 지켜옴으로써 일제 36년의 수탈과 민족상잔의 비극적 전쟁의 상흔을 털고 일어나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의 변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웬일입니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상징인 서울광장에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가 집단적으로 뒹겨서 음란한 행위를 벌이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서 꾸짖거나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 말입니다. 외세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진 격랑의 세월을 인동초처럼 견뎌내 조국 대한민국을 곳곳이 지켜오신 어른들은 다 어디 계십니까? 인의 예지, 권선징악을 외치시던 덕망 높으신 이 땅의 유림들은 다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외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반만년 찬란한 역사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국민입니다. 오천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의 고유한 문화와 미풍양속을 지켜옴으로써 일제 36년의 수탈과 민족상잔의 비극적 전쟁의 상흔을 털고 일어나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의 변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웬일입니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상징인 서울광장에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가 집단적으로 뒹겨서 음란한 행위를 벌이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서 꾸짖거나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 말입니다. 외세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진 격랑의 세월을 인동초처럼 견뎌내 조국 대한민국을 곳곳이 지켜오신 어른들은 다 어디 계십니까? 인의 예지, 권선징악을 외치시던 덕망 높으신 이 땅의 유림들은 다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외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날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에이즈 확산의 주범인 동성애는 신앙·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분명한 죄"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회장은 "퀴어축제와 같은 반성경적이고 음란한 문화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저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하며, 그들이 돌아온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에이즈 확산의 주범인 동성애는 신앙·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분명한 죄"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회장은 "퀴어축제와 같은 반성경적이고 음란한 문화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저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하며, 그들이 돌아온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성 대표회장

"6·25 동족상잔의 참상 결코 잊지 말자"

한보협, 제65주년 6·25 상기 기념예배 및 반공세미나 개최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이범성 목사 이하-한보협)는 6월 25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용산동 소재 소망교회(담임 김정민 목사)에서 48개교단장 및 기관장들이 뜻을 같이한 가운데 제25주년 6.25상기 기념예배 및 반공세미나를 6.25(목) 오후 1시 예배를 드리고 강병도 교수(경민대학교)를 세미나 강사로 초청 제2부 반공세미나를 갖는 등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다.

이날 한보협 박동호 목사(상임회장)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고 한상용 목사(예장 호연 총회장)가 기도를, 성경봉독(히 3:1절) 민정식 목사(예장, 예신총회 총회장),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는 "깊이 생각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제2부 순서로 탈북민 출신 강병도 교수(경민대학교)를 초청 "하나님과 한반도의 평화"라는 주제로 반공세미나를 진행했다. 그는 북한 평양에서 태어나 고위층 간부를 역임했으며, 그의 할아버지 강선욱이 김일성 외할아버지와 6촌간이었으며, 그의 부인은 총리를 지낸 강성산의 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회장은 "65년 전 발발한 6·25 동란의 참상에 대해 우리가 결코 잊지 말자"며 "6·25는 같은 국가 안에서 같은 부모 형제들끼리 싸운 '동족상잔'의 비극"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땅에는 교회마저 세속화되었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제2부 순서로 탈북민 출신 강병도 교수(경민대학교)를 초청 "하나님과 한반도의 평화"라는 주제로 반공세미나를 진행했다. 그는 북한 평양에서 태어나 고위층 간부를 역임했으며, 그의 할아버지 강선욱이 김일성 외할아버지와 6촌간이었으며, 그의 부인은 총리를 지낸 강성산의 딸이라고 밝혔다.

제2부 순서로 탈북민 출신 강병도 교수(경민대학교)를 초청 "하나님과 한반도의 평화"라는 주제로 반공세미나를 진행했다. 그는 북한 평양에서 태어나 고위층 간부를 역임했으며, 그의 할아버지 강선욱이 김일성 외할아버지와 6촌간이었으며, 그의 부인은 총리를 지낸 강성산의 딸이라고 밝혔다.



2015년 7월 7일 오후 2시 '한국교회, 회개의 눈물 회초리기도대성회'가 개최된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덕성이 모든 분야에서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매일 접하는 언론매체에서 우리는 언제쯤 밝고 희망을 주는 뉴스를 접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매일 분노하고 매일 마음이 우울해진다. 우리 모두의 도덕성 실종, 도덕 불감증이 끝없



‘한국교회, 회개의 눈물 회초리기도대성회’ 열린다

7월 7일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1,500여명 예상

는 사회붕괴로 내몰고 있어 어디에서부터 치유를 해야 할지 난감한 지경이다.

정치계의 온갖 비리, 기업인의 윤리실종의 사회악들이 우리를 자주 슬프게 한다.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 자성의 목소리를 듣고 2014년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성회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리는 이번 성회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때문에 취소되거나 축소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준비위원회 측은 "혼란스런 때일수록 더욱더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하고 대강당에 이어 소강당을 추가로 확보하며 회초리기도대성회에 민간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성회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의 설교와 각 단체장의 회개기도문 낭독에 이어 조용기 목사를 비롯한 국내 최고령 목회자 김영창 원로목사(104세)와 원로목회자 림인식 목사, 지덕 목사, 최복규 목사, 서상기 목사, 신신목 목사, 김명혁 목사, 송용필 목사, 임

조용기 원로목사, 김영창 원로목사(국내최고령 목회자 104세)
“제가 먼저 회초리를 맞겠습니다” 솔선수범으로 모범 보여



림인식 목사
영광교회 중경회장

최복규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중경회장

김영창 목사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김진호 목사
기광 중경감독회장



대회장 김영선 목사
회초리기도대성회

총괄위원장 한은수 목사
회초리기도대성회

준비위원장 김진옥 목사
회초리기도대성회

추진위원장 이주태 목사
회초리기도대성회

원수 목사 등이 직접 회초리를 맞으며 “제가 먼저 회초리를 맞겠습니다” “나부터 회개합니다”를 외치며 믿음의 후학들에게 솔선수범을 보일 예정이다.

또한 각기관 단체장인 이영훈 목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황수원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전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영선 목사(한국복음주의협의회 대표회장) 등이 회초리를 맞으며 회개를 통해 한국교회와 목회자의 경신을 호소할 예정이다.

회초리기도대성회 명예대표회장인 임원수 목사는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대한민국 발전의 주춧돌이자 밑거름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작금의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는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며 느끼는 불안감만족이나 지도자들의 도덕성 하락, 부정과 부패, 습관처럼 반복되는 분열과 분쟁으로 심각한 진통을 겪으며 혼란에 휩싸여 있다. ‘회초리기도대성회’를 통해 회개운동의 바람이 불면 한국교회는 강한 역성을 회복할 것이며, 한국사회는 땅에 떨어진 도덕성이 회복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다.”라고 말했다.

김영선 목사는 “회초리기도대성회를 통하여 한국교회 대한민국의 공경사회의 건설의 든든한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아가 회초리기도대성회의 비람은 전 세계로 영적인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와 영적지도자들은 기도를 통해 강력한 영적파장을 일으킬 때이다. 100여년 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의 성령의 비람은 2015년 회초리기도대성회를 통하여 성령의 핵폭탄 같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이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부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준비위원장 김진옥 목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총체적 도덕성 회복 운동이다. 이것은 교회로부터, 그리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오늘의 교계와 이 사회 전체의 도덕적 붕괴를 막아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교회와 앞 선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같이 자각하고 돌이켜 행동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이번 회초리기도대성회는 순교의 피로 세운 한국교회에 절체절명의 순교자적 각오가 절실하다는 절박감에서, 그동안 기독교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원로 지도자들이 교회의 경신을 위해 2014년에 이어 올해도 변함없이 발 벗고 나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회초리기도대성회 추진위원장 이주태 장로는 “한국사회는 메르스의 여파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일천대 달천격으로 동성애를 위한 퀴어 축제가 서울 한복판에서 개최됐다. 이런 사태 앞에서 지금이야말로 전능자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임을 뼈저리게 느낀다. 이런 국가대난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며 기도할 때라고 생각한다. 많은 성도분들이 회초리기도대성회 현장에 함께 동참해 기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TS기독교TV, 숭실대학교와 업무협약체결

한반도 화해평화통일교육을 위한 상호협력 추진

순수복음방송 CTS기독교TV(회장 김경철 이하 CTS)와 숭실대학교(총장 한현수)는 18일, 서울 동작구 CTS멀티미디어센터에서 MOU를 체결하고, 한반도 화해평화통일교육을 위한 상호협력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사항으로는 △ 한반도 화해평화통일교육을 위한 정시 및 수시 교류 △ 한반도 화해평화통일교육을 위한 협력사업 공동 추진 △ 양사가 가지고 있는 매체, 광고채널을 통한 홍보 △ 기타 양 기관의 상호 관심 분야 등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CTS 김경철 회장은 “CTS는 교단 연합으로 설립된 기독교 대표 방송사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그동안 통일관련 특집 프로그램 제작 및 통일식수 사업 협력 등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특별히 이번 숭실대학교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서 남북한 평화공존과 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역할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숭실대학교 한현수 총장은 “신앙적인 통일을 이루고 세계복음화에 앞장서는 통일한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이 준비되어 있는 중요한 사역에 한국교회의 동반자인 CTS와 동역하게 되어 기쁘고, 양사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질 것을 확신하며 선한영향력을 끼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CTS와 숭실대학교는 상호 양 기관의 협력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발한 업무교류를 통해 한반도 화해평화통일교육 및 비전을 제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한기협, 제65회 6·25 상기 연합예배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연합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와, 사단법인 세계개혁교회연합회 총재 김권현 목사와, 사단법인 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박형철 목사가 연합하여, 제65회 6.25 상기 연합예배를 23일 종로구 연지동 여전도회관 루이스기념관에서 가임교단 임원 및 회원들이 모여 예배드렸다.

이날 연합예배는 사단법인 세계연 상임부총재 노종관 목사의 사회로 신앙고백한 후, 찬송가 460장을 합창하고, 사)세계교 총재 김권현 목사의 기도 후에 이어, 예정합동부흥총회 부총회장 서경숙 목사의 시편 1:1-6/롬8:1-2를 봉독하고 김병선 목사 색소폰연주와 개혁종창단의 찬양에 이어, 사)한기협 대표회장 박형철 목사의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박 목사는 6.25는 북한의 잘못된 세계관의 오판에 의한 전쟁이었으며 전쟁이후 그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북한 체제는 위태로운 상태로 전락되었고 우리나라는 기



독교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에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기독교도 종교다원주의로 혼란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의하여 종교다원주의를 멀리하고 개혁주의 정신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하고 그 말씀대로만 살며 역사의 교훈을 거울삼아 생명의 성령 안에서 악인의 죄를 좇지 말고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기도로서 전쟁이 없는 나라 행복을 구원하는 우리민족이 되어 국기를 튼튼히 하고 서로 사랑하며 평화 속에 살기를 소원했다.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사)세계연 대표회장 최목석 목사의 기도, 사)한기협, 사)세계연, 사)한개단 3개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예정기도총회 총회장 김성환 목사가 기도를, 일본회개구와 우리 땅 독도 지키기 위하여, 예정개혁2총회 총회장 송요셉 목사가 기도했다.

또한 복음으로 남북통일을 위하여 예정개혁교회총회 부총회장 정광용 목사가 기도를, 예정개혁총회 총회장 강희준 목사가 인사와 광복을 튼튼히 하고 서로 사랑하며 평화 속에 살기를 소원했다.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헌물 등록번호: 서울04-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지침요강을 준수한다
대표: 이재진 목사 이사장: 조경수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암로 176번길 32호 대원빌라 2층 202호 (고강동동 574-10, 대원빌라 2층 202호)
▶E-mail: jltpress@hanmail.net / jltntvcpj@naver.com
▶전화: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070) 8230-0034
▶H.P: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48,000원
▶후원계좌(예금주: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WS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이영풍 목사



신안창 목사

보수신앙과 개혁주의 신학의 정체성으로
한국교회를 견인하는 교계의 표준 웨신총회
(-양무리의 본이 되라-벤전5:3)

본 총회는 보수교단으로서 뜻을 같이 할
총회 및 노회, 개·교회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72 301호
웨신총회 ☎ (02)835-2606-7 Fax (02)835-2068
http://ws21.org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수영 목사

- 한국어목성정학술원장 원장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협력위원장
- 행복생전지유센터 원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생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욱: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뛰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은
- ☆ 류정호: 만성변비로 가이대대학병원에서 피한 장폐쇄비중 고침
- ☆ 김소영: 유머티즌관전 평생지병 집회중 신로 기도회 고침받은
- ☆ 남영수: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수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은
- ☆ 박수영: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건강
- ☆ 강복희: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은
- ☆ 김복자: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은

예배 시간 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한예수교장로회 행복샘교회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 100-18(신전동)
☎ 053-752-8238 010-8537-8291

에녹부흥신학원



http://kiea.onmam.com

주식 무료 제공

-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 오후 2시(학술원)
- 장소: 등불교회, 예수능력치유센터
- 주소: 인천 남구 능해길5(구, 남구 송의1동 441-45)
- 문의: (사무간사) 010-6778-0651

에녹총회 신학원, 연구원, 학술원생 수시모집
수업일: 매주 금.토 오전 10:00 부터~
모집양(무용, 국악, 찬양) 매주(목) 오전 10:00~

박용숙 목사, 필리핀 농아난민 돕기 기금마련 집회

에 조브(우슬초) 선교회(회장 박용숙 목사)는 필리핀 선교 농아난민과 난치병, 희귀병, 농아환자들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하여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소재 주성청각언어교 성당에서 뜻을 같이한 동역자들과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2015년 6월 27일(토) 오전 11시 정 기집회를 개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드렸다.

회장 박용숙(우슬초)목사는 에 조브(우슬초)선교회가 국내외적으로 활동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2014년 5월 10일 본 교회에서 발족된 동 선교회는 청각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필리핀에 소외된 농아돕기, 난치병, 희귀병, 농아환자들을 돕기 위한 행복의 일일 찾집회를 열어 수입금 310만원과 아이패드를 필리핀 다바오지역 선교를 위하여 전달했다.

이날 회장 박용숙 목사는 에 조브(우슬초)의 뜻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레14:1~6절을 본문으로 레14장은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여 일반 사회에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의식이라고 했다. 제사장은 문둥병



자에게 간다(3절)-물론, 문둥병자는 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금지되어있다. 제사장이 "영문 밖으로" 나와 그에게 가야 했다.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영문 밖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히 13:10-13). 우리가 그를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우리를 찾아오셨고 잃은 자를 구하셨다(눅19:10).

제사장이 제물을 바친다(4~7절) 이 의식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름답게 상징한다. 제사장은 한 마리를 붙잡아 흙으로 만든 그릇(토기)에 넣고 죽인다. 물론 새들은 도자기에서 삼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늘을 날도록 되었다. 그리스도는 가까이 하늘을 떠나 몸을 입으시고 즉 흙으로 된 그릇에 자기를 담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

새를 죽일 때 성령을 상징하는

흐르는 물 위에서 죽인 것에 유의하자.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살아있는 새를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 우슬초 죽은 새의 피에 적신다(다시 놓아주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얼마나 생생한 예화인가!)

그다음에 제사장은 약간의 피를 문둥병자에게 뿌렸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는 죄사함은 없기 때문이다" (히 9:22). 시51:7~9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리키시고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아멘

구약시대에 죄 사함을 위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새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 제단에 뿌리는 도구

가 우슬초다. 이 의미를 갖고 복음 시대에 우리의 회생의 한물과 정성을 드러 제단에 드리는 선교회를 발족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또한 회장 박용숙 목사는 일직이 서예와 독실한 기독교 신앙으로 국내외 청각인, 노숙자, 무의탁 노인, 교도소 제조사, 경찰직원들,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헌신해오고 있다. 지금도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이라며 기도를 부탁했다.

이날 주성청각언어교회 본당에서 열린 예배는 신한길 목사의 인도, 안태영 목사의 기도, 김영훈 선교사가 요3:26~30절을 봉독하고, 필리핀 교역자들, 김정호 사모가 특송을 했다. 전아 목사는 "Best man"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특별기도에 '대통령을 위하여' 조복순 목사, '전국 농아인 35만 명의 영혼구원을 위하여' 홍향표 목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최요셉 목사 등이 기도했다.

이어 편편을 히 석 목사(한경총증경회장), 선교보고에 김정수 회계집사, 회장 박용숙 목사의 인사 및 광고가 있는 후 이은규 목사의 축도, 전용만 목사의 오찬기도로 마쳤다.

한편 회장 박용숙 목사는 이날 예배헌금과 특별헌금 643,000원 전액을 필리핀선교 농아난민 돕기 기금으로 전달했다.

한교연 주최 한반도 화해평화통일포럼

광복 70주년, 분단 극복 위해 "분단을 넘어 미래로, 통일로" 주제

한국교회 보수 진보 망라, 통일을 향한 방향성과 실천과제 모색/통일부장관 기조연설, 운영관 前외교부 장관, 박종화목사 등 발제/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분단 극복을 위한 한반도 화해 평화통일 포럼이 열린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은 오는 7월 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광복 70년, 분단을 넘어 미래로, 통일로"를 주제로 통일포럼을 개최, 통일에 대한 각계의 의견과 지혜를 모으고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모색하게 된다.

이번 통일포럼은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해 속에서 정치 사회 민주화와 세계 11위권의 경제변영을 이루었으나 지난 70년간 남과 북이 동쪽으로서의 형제애를 회복하지 못한 채 아직도 과거의 적대적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분단을 극복하고 남북이 화해와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과 방향성을 모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포럼은 특히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교회에 보수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인식에 따라 한국교회 보수와 진보권을 대표하

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게 된다.

포럼의 1부는 박위근 목사(한교연 증경대표회장·통한 증경총회장)의 사회로 국민의례와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의 환영사, 포럼을 주관하는 한교연 남북교회협력위원회 위원장 임은빈 목사(동부제일교회)의 대회사에 이어 황용대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가 축사를, 장차남 목사(예장합동 증경총회장)와 전용재 감독(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각각 격려사를 전하게 된다.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은 해외일정을 이유로 불참)

2부 강연은 조성기 목사(송실대 통일리더십연구소원장)를 좌장으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게 되며, 이어서 운영관 전 외교부장관(서울대 외교학과 교수)이 "국제정치 질서에서의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과 과제" 1발제를, 한현수 송실대 총장이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한국교회의 차세대 통일교육 방안"을 주제로 2발제를,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담임·평통기연 상임대표)가 3발제를 맡게 된다.

한교연 양병희 대표회장은 이번 통일포럼과 관련 "오늘을 사는 우

리 모두에게 통일은 이제 먼 미래에 달린 꿈같은 얘기가 아닌 바로 코앞에 닥친 현실이 되고 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친다고 했을 때 구체적인 준비는 매우 더디고 또한 "우리는 통일을 답론으로 삼을 때 구동독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교회에서 시작된 기도하는 운동을 시발점으로 삼지만 분단 45년만에 통일을 이룬 독일도 어느 날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현실로 닥치면서 엄청난 시행착오와 대가를 치러야 했다"면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분명 하나 남이 예비하신 축복이고 대통령도 '통일 대박론'을 주창했지만 70년 간 서로 나누어지었던 형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제도적 이념적 통일에 앞서 사람의 통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통일포럼을 통해 남북이 분단을 극복하고 화해하며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각계의 생각과 지혜를 모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OWIN(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킹·LA지부 회장 권유나) 주최로 열린 '차세대 여성리더 컨퍼런스'가 "Dare to DREAM - 꿈을 갖고 도전하라!"란 주제로 2015년 6월 20일(토) 오후 4시 30분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가든스위트호텔에서 성대히 열렸다.

15년전에 시작된 KOWIN은 한국 여성가족부 산하로 시작되었고, 그 취지는 재외차세대여성지도자 양성 등 여성의 글로벌 리더십 및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LA 주류사회 정치적 리더로

활동하는 영 김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앤 박 LA 카운티수퍼리얼로트 판사, 미셸 박 스틸 OC수퍼바이저 등이 KOWIN이 배출한 지도자로서 많은 차세대 리더들에게 롤 모델이 되고 있다.

이날 컨퍼런스는 남가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한인 유명 여성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자리를 가득 메운 차세대 여성 리더들에게 꿈과 용기와 도전의식을 북돋아 주었다. 권유나 회장의 컨퍼런스 개최선언을 시작으로 앤 박(LA 카운티수퍼리얼로트 판사), 임

KOWIN, 차세대 여성 리더 컨퍼런스 개최 주제 "Dare to DREAM - 꿈을 갖고 도전하라!"

"영 김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앤 박 LA 카운티 수퍼리얼로트 판사 참석"

해빈(KCCD 대표), 영 김(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모니카 류 M.D., 데이비드 남(Assistant Director Harvard University), 세리 박 DDS(US Navy) 등의 강연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날 패널로 나선 영 김 주 하원의원은 본인은 인천에서 태어나서 가족과 같이 판사로 이민을 갔고, 그 뒤 하와이를 거쳐 캘리포니아에서 살게된 배경과 더불어 미국 의회에 들어가까지의 많은 정치적인 경험과 현재 하는 일들을 소개했다. 딸이 병이 들었을때 8년간 병간호를 하던 경험을 말하면서는 눈시울을 붉혔으며 "이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낙담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됐으며, 하나님이나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의회에 한인여성으로서 혼자 활동한다는 것은 매우 외로운 일이라고 전제한 뒤, 이 자리에 참석한 차세대 여성리더들이 의회에서 같이 일할 수 있길 희망했으며, 꿈을 크게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차세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앤 박 판사는 목사의 딸로 이민을 와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많은 실패와 역경을 겪었으며, 만약 여러분이 생각만 하고 시도를 하지 않으면 결코 목표를 달성할 수 없

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나라가 움직이는 데는 정치적 역량이 많이 필요하며 정치적 역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정치가에게 알려야 하는데, 우리 한인사회가 뒷편에서 서성거리며 실제로 필요한 것을 잘 알리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차세대 여성리더들이 이런 컨퍼런스나 교육을 통해 진정한 정치적 성장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꿈을 크게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미국 드림을 이루길 바라며 다음에는 여러분의 성공스토리를 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 외 임해빈 KCCD 대표가



'Speaking Up'을 강조하며 "목표를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은 '말을 하는 것'이며 모든 비영리단체의 시작은 Q/A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모니카 류 박사는 의학 분야에서 여성 리더십을 설명했으며, 데이비드 남 하버드 자연사 박물관 디렉터는 뮤지엄아트 분야에 관한 경험을, 박세리 치과전문의는 전문분야의 경험을 통해 차세대 여성리더들에게 꿈을 위해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준 귀한 시간이었다.

순혜숙 서부지역 담당관은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KOWIN을 통

해 많은 차세대 즉 이민 1.5세대 및 2세대를 넘어 앞으로의 미래를 대변하는 여성리더를 찾아내고 또 그들이 다른 차세대 리더들을 발굴함으로 한국인의 위상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15년전에 출범한 KOWIN이 벌써 미국 주류사회에 한인들을 대표하는 많은 여성리더들을 배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그들을 롤 모델로 더 많은 후배들이 더 높이 각 분야의 주류사회에 활동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미주타임즈 다니엘 방 기자 제공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보수)총회 2015 하계 수련회 공고

주제 : 일어나 빛을 발하라(60:1절)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윤석철 박사
천복교회



정호석 목사
전주사랑교회



전예희 목사
성명교회



임상국 목사
천복교회



주지광 목사
사천대교회



서재식 목사
용성교회



박영석 목사
예본교회



송인섭 장로
양명교회



이점수 장로
천복교회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 일시 : 2015년 7월 6일(월)~8일(수) (2박3일 / 접수 6일(월)오후 4시)
- 장소 : 아산 토비스콘도
- 주소 : 충남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261-15
- 전화 : 041-541-5432

- 회비 : 1인 6만원(부부별도 추가)
- 노회후원 : 20만원 후원부탁
- 연락처 : 전예희 목사 010-7617-3331 / 김관호 목사 010-7788-0091

총회신학대학원
총장 윤석철 박사

경남신학원
학장 정호석 목사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교회
이사장 이규필 목사

서울신학연구원
학장 박영석 목사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0-168
H.P 010-5325-3893

본 합동보수교단은 보수교단으로서 뜻을 같이 할 교단과 개 교회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사무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가산동 151-47 동천교회)
☎ H.P 010-7474-3173, 02)854-1326, 496-0181(FAX)

“국가번영, 남북통일 복음과 성령으로 이룩하자”

세계복음화중앙협의회, 2015 남북통일기원 연합성회 개최

제65주년 6.25를 맞은 지난 6월 19일 양평금식기도원에서 기도의 함성이 크게 울려 퍼졌다. 사단법인 세계복음화중앙협의회(대표회장 정태규 목사) 소속 500여명의 회원들은 이날 “국가번영, 남북통일 복음과 성령으로 이룩하자”는 주제로 2015 남북통일기원 연합성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평화통일을 향한 기독교인들의 열망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 사회에 만연한 불신과 혼란 해결을 위한 기도 중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참석자들의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빈부격차 해결 등 경제정의를 간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참석자들은 이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나라를 바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 또 하나님 공의 실현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라가 하나 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나라와 민족, 평화통일, 재난복구를 위한 기도제목을 갖고 통성으로 부르짖었다.

이선목 목사(송의교회)의 사회로 열린 성회는 고병수 목사(수석부총재)의 기도, 이종영 목사(공동회장)의 성경봉독 후 김국도 목사(지도위원)가 ‘여호와께서 지키는 민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현재 김정은은 체제 출



범이후 심각한 남북긴장과 좌우대립의 격랑을 겪고 있지만 국가안보의식은 오히려 희석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다. 먼저 나라와 그 운명을 생각하는 한국교회와 오랜 전통인 기도운동을 하루속히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총체적인 위기와 영적 비상사태는 다른 누구의 책임이 아닌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데 있다”며 “지금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 지난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부흥을 이뤘던 때처럼 한목소리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전태규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6.25사변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적처럼 지금까지 우리민족을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 한다”며 “오늘날 어려움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통일을 위해 책임의식을 갖고 기도할 때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와 지난날 일제치하에서 해방되어 온 성도, 온 가족들이 뛰어 나와 기쁨으로 만세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통일을 선물로 주시고 온 교회가 기뻐하며 함께

감사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 목사는 “참된 자유와 평화는 정치적·군사적 또는 경제적 방법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질 때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며 “이념과 사상으로 치우쳐 세상적인 가치로만 한반도 통일을 볼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꿈으로 기도해 한국교회가 정치사상과 교파를 넘어 성령 안에서 연합,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한 후 엄기호 목사(총재)의 인사한 후 박철규 목사(상임회장)의 축도로 성회를 마쳤다.

용서와 화해, 평화를 위한 밑알이 되자

6.25 65주년 성명서

6.25 전쟁 65주년을 맞아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1950년 6월25일 새벽, 북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은 3년 1개월간 민족상잔의 끔찍한 대비극으로 이어졌다. 당시 종전 평화와 같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쟁에 뛰어든 국군 중에 41만5천여 명이 전사했으며, 총 131만2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UN 16개국에서 참전한 193만여 명의 외국인 병사들 중 4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10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 용사들의 위대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 밖에 없는 목숨에 대한 대가는

그 어떤 보상으로도 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예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또한 우리 모두는 그분들을 마음으로 부터 우리나라의 존경심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6.25 전쟁은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고, 또 잊혀져가는 과거사가 되고 있다.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보듯이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냉전이 종식된 21세기에도 여전히 한반도 뿐 아니라 지구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도 종북과 친미 등 남남 갈등으로 분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이때에 6.25가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으며, 국민들이 이 역사적 비극을 어떻게 승화시키고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의미와 실제적 진실을 정신 바짝 차리고 후세에 가르치고 교훈해야 한다.

우리는 6.25 전쟁 65주년을 맞아 다시는 6.25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화해와 협력의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가게 되기를 바란다. 6.25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속히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신뢰 회복의 길로 나가야 한다. 상호 신뢰가 쌓일 때 민족통일의 디딤돌이 놓여 민족과 겨레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진정한 평화 통일의 날을 앞당길 수 있다.

한국교회 1천만 성도들은 남북이 평화 통일을 이루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며 한반도에 용서와 화해, 평화가 정착되는 날까지 한 알의 밑알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한다.

2015. 6. 25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제65주년 6.25를 맞이하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 발발 65주년을 맞이하여 민족적 아픔을 위로하고 동시에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목숨 바친 순국선열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린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희생의 아픔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제2의 6.25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성회를 기획하였다고 밝혔다. 국제에녹부흥사회는 전천후 아전군과 같은 부흥사를 양성하여, 국내뿐 아니라 해외 성회를 주관하며, 부흥의 불을 지피고 있다. 인천지사 kdp0920@naver.com

부적으로는 숙청과 같은 공포정치로 힘을 과시하고 있다. 남북은 정전(停戰)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더욱이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굳건한 안보의식을 갖고 하나로 똬뚝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북한인권법으로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록, 보존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통

일을 대비한 대한민국의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제는 전쟁의 어두움을 딛고 일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 한국교회는 통일을 대비하여 교단별로, 교회별로 통일기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확대되어 실제적, 구체적으로 통일준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통일의 길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며,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인 남북이 하나되어 진정한 세계 평화를 이룩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2015년 6월 2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국제에녹부흥사회 6.25상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대성회 열어”



국제에녹부흥사회(총대표회장 곽영민 목사)는 지난22일 월요일 밤부터 25일 목요일 밤까지 6.25 65주년을 기념해 “6.25상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대성회”를 열고, 은혜롭게 마쳤다.

이번 성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2동에 위치한 세계로교회 기도원 답임이자 원장인 고관능 목사의 제의로 국제에녹부흥사회에서 주관하여 성회가 개최되었다.

고 원장은 매주 기도원에서 성회를 하는데 이번 주간은 6.25가 있는 주간이고, 나라와 민족이 안녕해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으므로 6.25의 민족의 아픔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제2의 6.25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성회를 기획하였다고 밝혔다. 국제에녹부흥사회는 전천후 아전군과 같은 부흥사를 양성하여, 국내뿐 아니라 해외 성회를 주관하며, 부흥의 불을 지피고 있다. 인천지사 kdp0920@naver.com

죄와 사망의 법과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시기를

성령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의 여정을 로마서로 히브리서로 아가로 시편 23편으로 이스라엘의 7대 왕자로 설명해 주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는 길을 알려 주셨습니다. 2000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땅(성령의 은총)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저를 연단하셔서 2013년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에게 온 마음의 할렐루야 성령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1988년에 거듭나고 1997년에 40일 금식을 해도 버리지 못했던 음란과 헬기를 생명의 법으로 이기게 해 주시고 주님 강림하시길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시며 직접 이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책에 담겨있습니다.

Contents

책머리에 _ 5

- 1장 새로운 피조물
- 2장 원수마귀의 거짓말
- 3장 새 언약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입니다.
- 4장 인류구원의 목적인 성전건축
- 5장 마음의 불결을 통한 영분별
- 6장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 7장 거듭난 후에 성령세례!
- 8장 성령세례가 가장 큰 복입니다!
- 9장 사단의 통로인 입을 봉쇄하라!
- 10장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란?
- 11장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 12장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자!
- 13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자!

- 14장 죄를 짓지 않아야 신부입니다!
- 15장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려면?
- 16장 전인구원이 신부단장입니다!
- 17장 현재에서 이루어지는 몸의 구원은?
- 18장 죄 사함과 의롭다하심
- 19장 거듭남이 생명의 시작입니다!
- 20장 누가 거듭남의 구원을 얻는가?
- 21장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자!
- 22장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 23장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 24장 행복한 성도가 되는 다섯 단계는?



조영만 목사

약력

인하부고 10회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
총회신학교
국제신학대학원(M.Div, M.A.)
인천 시청 기독교신회 지도목사
인천 종합건설본부 신우회 지도목사
인천 연수구청 신우회 지도목사
사예장합동보수연합신교회 이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교단 총무
JTNTV 방송, 지저스타임즈 운영이사
CTS 경인방송 운영이사
현재 인천시온장로교회 담임목사

다음카페

시온의 딸들에게 에복을
<http://cafe.daum.net/choym.com>

조영만 지음 / 15,000원 /

종은당

유통처: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북폴리스 등 전국 100여 대형서점
인터넷서점: yes24, 인터파크, 알라딘, 도서 11번가, 리브로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신축착공감사에배



예장대신총회(석수)는 지난 6월 10일(화) 오전 11시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강당에서 신축착공감사예배를 드리고, 건축위원장의 보고와 총장 황원찬 박사의 기도 후 신축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신축착공감사에배에 박재봉 교목실장의 인도와 오산대광교회 이형근 목사(대신석수총회 서기)의 기도, 김경희 학우의 특송, 총장 황원찬 박사는마침내 16~18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황 총장은 "기쁘고 감격적인 날이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 총회 임원 및 교수, 재학생들이 자리를 같이하여 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신축공사장위에 함께하길 믿는다며 기원했다.

그러면서 신학대학교는 교회 중에 교회이며 조직신학으로 의미가 없다할지라도 신학대학교는 주의 종들을 양성하고, 이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많은 영혼 구원에 귀한 하나님의 교회에 목회할 주의 종들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학대학교가 이 땅위에 설립된다는 것은 신비롭고 오묘한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학교가 도약할 수 있도록 귀한 교사신축을 앞두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감격스럽다고 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며, 이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렇게 간증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이 기쁨과 감격 속에 신축의 그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다시한번 주님이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피로 값 주고 사셨다고 하시며 우리도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하고, 오늘 이러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며 천국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이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예정된 역사 속에 우리가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했다.

한편 황 총장은 신학교 신축착공

총장 황원찬 박사의 마무리 기도로 마쳤다.

한편 지난 13일 오전 11시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황원찬 박사) 1층 강당에서 2015학년도 1학기 종강예배를 드렸다. 이날 교목실장 박재봉 교수의 사회, 김종구 교수(실천신학)의 기도, 조재숙 교수(사회복지학)의 성경봉독(시 121:1~6)과 상담심리치료학과 학우들의 특송, 황원찬 총장은 "인생의 도움은"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황 총장은 제2의 예루살렘인 평양성에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고 흠여졌던 제단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

와 예배드리게 될 날이 이 민족사에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자고 했다. 또한 한국교회는 지금 주일성수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주일성수 회복을 강조하고, 따라서 주일학교 회복을 위하여 기독교가 앞장서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하며, 미래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다윗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듯이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나의 의지를 밝히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나의 구원되시는 하나님만을 찬송하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내 생애를 이 공사가 무사히 잘 완공되기를 바라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일성수 회복을 강조하고, 따라서 주일학교 회복을 위하여 기독교가 앞장서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하며, 미래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다윗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듯이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나의 의지를 밝히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나의 구원되시는 하나님만을 찬송하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내 생애를 이 공사가 무사히 잘 완공되기를 바라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벤엘중양선교회 설립예배 및 대표회장 이해진목사 취임

“이 땅에서 쓰임 받는 시간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섬겨나가는 일에 최선을”

국내에는 물론 세계 선교를 위해 설립 된 벤엘중양선교회 설립 및 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가 16일 부천 벤엘중양교회 본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1부 예배, 2부 축하예식 순으로 진행되어, 큰 꿈과 소망을 품은 노병주 목사의 예배인도, 기도 김선용 목사, 성경봉독 임효성 목사, 특송 김병섭 전도사, 설교 한명기 목사(분회 총재), 봉헌 조애숙 목사, 봉헌기도 임일화 목사, 축도 김태경 목사 등이 순서를 맡았다. 한명기 목사는 "나를 크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란 제하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욕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으로 욕은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주셔서 크게 여기신다는 것으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를 향

하여 진행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 모두를 크게 여기시고 계시다"면서 "이번에 대표회장으로 취임하시는 이해진 목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고 사역에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며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2부 취임식에서, 사회 노병주 목사, 찬양 김애숙 목사, 취임패수여 정재진 목사(상임고문), 취임사 및 임명장 수여 이해진 대표회장, 축사 김도진 목사(가나안교회), 유희열 목사(합동중앙교회 총회장), 강효이 목사(합동중앙교회 신학연구원), 권민 정재진 목사, 조요셉 목사(고문), 격려사 정경표 목사(21세기세계영성부흥사협의회 총재), 등이 순서를 맡아 진행되었다.

이날 신임대표회장 이해진 목사는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저에게 분회의에서 직책과 임기를 주셔서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삶을 헌신하게 하겠다"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까지 국내는 물론 해외 등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섬기는 자세와 마음으로 달려가겠다"며 취임 인사를 했다.

임원 명단은 대표회장 이해진 목사, 상임고문 정재진 목사, 대표

고문 박삼열 목사, 고문 조요셉 목사, 실무총재 한명기 목사, 상임회장 김선용 목사, 서상운 목사, 수석실무회장 임효성 목사, 실무회장 이영철 목사, 양상식 목사, 군선교위원장 권오철 목사, 교정선교위원장 김병수 목사, 전도선교 위원장 강수정 목사, 홍보국장 진근제 목사, 운영회장 임일화 목사, 상임총무 김훈 목사, 총무 김현기 목사, 김성령 목사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긴급 대담회 열어

“만약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성경은 불법 서적이 될 수 있다” 우려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이하 동성애대책위)가 지난 22일(월) 오후 4시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조예홀에서 '동성애 조장과 확산 그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 긴급 대담'을 개최했다. 동성애대책위 본부장 소강석 목사(새연대교회 담임)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네 번의 발제와 토론 등이 진행됐다.

발제자로는 김지연 약사, 염안섭 병원장, 이태희 변호사, 이용희 교수(가천대학교)가, 토론자로는 윤덕남 총무(한기총)와 김병일 사무총장(한정교회)이 참여했다.

먼저 김지연 약사는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에이즈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현재 없다. 백신도 없으므로 예방만이 중요하다. 에이즈 발생의 주된 원인은 MSM(Man who have Sex with Man,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남성)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 에이즈의 전파의 주된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MSM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



다"고 말했다. "최근 에이즈 환자들은 늘고 이를 위한 나라의 총 지출액은 거의 변화가 없다. 더 이상 에이즈 환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 주된 원인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제는 언론은 성소수자들을 특정 질환이나 사회적 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고 선언해 버렸다"면서 "그러나 폐암의 주된 원인을 흡연으로 밝히고, 이는 곧 그들이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태희 변호사는 "오늘날 인권이라는 단어가 오·남용되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자 인권을 말하며 쓰는 '성소수자'라는 표현인데, 여기에는 다수자가 가해자이고 소수자가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소수인지를 냉정히 따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인본적인 세상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기에, 인권에

들을 여전히 돌보고 있는 이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혐오 때문이 아니다. 동성애로 인한 고통을 알기 때문이고, 이는 곧 그들이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태희 변호사는 "오늘날 인권이라는 단어가 오·남용되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자 인권을 말하며 쓰는 '성소수자'라는 표현인데, 여기에는 다수자가 가해자이고 소수자가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소수인지를 냉정히 따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인본적인 세상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기에, 인권에

대한 이러한 정의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에게 있어 인권은 스스로가 부여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렇게 될 때 그들의 인권은 모순에 빠지고 만다. 그러면서 그는 "이 세상이 말하는 인권 개념에 대해 그것이 가진 역설과 허구를 인식하고, 성경적 인권의 개념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용희 교수는 각 나라에서 동성애 지지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키며, 한국교회가 연합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만약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성경은 불법 서적이 될 수 있다"면서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 여기에 맞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대응전략으로 "1. 성과 학연구소 설립 2. 국민재무교육을 보단 창단 3. 법률관 구성 4. 동성애치유프로그램 개발 5. 언론·미디어와 SNS, 인터넷을 통한 대응"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발제에 앞서 윤덕남 총무(한기총), 양병희 대표회장(한교연)이 환영사를 전했으며, 박종연 목사(한교연)가 합심기도를 했다. 황수원 대표회장(한정교회)은 개최기도를 했고, 유만석 대표(한국교회연론회)는 인사말을 전했다.

◆ 중간에 중략된 부분은 www.jtntv.kr JTNTV 교계뉴스-교계소식에서 시청바람...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포주안교회 설립32주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주일	낮 예배	1회	오전 8:00	3층 대예배실	
주요일	저녁 예배	2회	오전 11:00		
수요일	수요일 예배		오전 7:00		
금요일	기 도 회		오전 8:00		
대 일	새벽 예배		오전 5:00		
주일	유치부	1회	오전 9:30	2층 세관	
		2회	오전 11:30		
		1부	오전 9:00		3층 대예배실
		2부	오전 9:30		2층 영신강의
		3부	오전 11:30		3층 대예배실
교회	영양부	오전 11:30	3층 대예배실		
		오전 1:00	5층 주일학교		
		오전 2:00	2층 영신강의		
주일	낮 예배 (3회)	오전 1:15	본당에서		
		오전 2:30			
수요일	주요일 예배	오전 7:30	1층 대예배실		
금요일	기 도 회	오전 8:00			
대 일	새벽 예배	오전 5:00			
주일	유치부	오전 9:00		2층 교육관	
		오전 9:30			
교회	유치부	오전 11:30	1층 대예배실		
교회	유치부	오전 10:00			

저지스타임즈 및 JTNTV 방송 직원들은 목포주안교회 설립32주년을 진심으로 감축드립니다.
이시정 조영수 목사, 사경 소진우 목사,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발행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530-814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북항주택단지)

전화:(061)272-4908, 278-0692 팩스:(061)-278-0693

홈페이지 http://www.mokpojuan.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표어: 새 천년을 새 소망으로 새롭게

•강도사: 정정훈 이진영, •전도사: 정성철, •반주자: 한진경, 한송이

담임 장한국 목사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대 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대 예배	오전 2시	학원회	토요일 5시
수 요 예배	오전 7:30	청년회	토요일 6시
새벽 예배	오전 5시	여전도구역회	금요일 11시
금요일대 예배	오전 9시	남전도구역회	매일 저녁 6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금빛대교회

건강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살아있는 교회

선교에 중점을 두는 교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7층

☎031424-7612(교) HP 010-4436-7060 홈페이지: http://jcn.kr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성중앙교회

표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담임회장 정대성 목사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행함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예/배/시/간/안/내

새벽 예배: 새벽 6:00

주일대 예배: 오전 11:00

주일대 예배: 오후 2:00

수요일대 예배: 오후 7:30

금요일대 예배: 오후 7:30

2015 표어

선교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경기도 덕양구 화신로 260번길 66(화정동 5층)

화정버스터미널/전철 3호선 화정역 1번출구

☎031)974-7091

요한계시록1장 강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啓示”(10)

성령 안에 있을 때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은 요한

〈지난호 이어서〉

1차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면 그 다음으로 양모같이 하얗게 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발거숨이 양의 몸에서 양털이 하나씩 나와 결국에는 양의 온 몸이 양털로 가득하여 하얗게 되는 것입니다. 양모같이 하얀 것과 1차적으로 눈같이 하얗게 한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모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위에 하얀 눈으로 덮어져서 밖에서 볼 때는 전체가 하얗게 보여도 그 속은 여전히 더러운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겉으로 보이지 않음 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영원속죄 구원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발거숨이 양의 몸에서 털이 하나씩 하나씩 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양털이 어디까지 날까요? 결국 주님이 순교까지 이루어 주십니다. 순교한 자가 흰옷 입은 것과 양의 온 몸이 양털로 가득하게 된 것이 같은 맥입니다.

주님의 머리가 눈 같고 양모 같은 것이 결국은 주님이 쓰신 영광의 관과 같은 것인데 이것을 계시록의 수신자들에게 똑같이 주시기 위해 금촛대 교회를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금촛대 교회에 속해 있는 자라면 금촛대 교회 가운데에 영화로운 관을 쓰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금촛대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금촛대 교회가 일반 촛대교회와 무엇이 다른지? 주님이 금촛대 교회 사자에게 특별히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책입니다. 금 같은 진리를 주시고 금 같은 연단을 시켜서 완료된 자에게 그에 따른 금 기름을 부어 주시고, 이미 순교할 자로 제물신앙으로 세워주신 후 결국 순교 통해 금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금촛대 교회의 사자를 통해 직접 금촛대 교회를 관장하시면서 주님이 만들

장한국 목사
개혁총회 부총회장
주사랑교회 담임



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 계시록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시록의 금촛대 교회 가운데 라오디케아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받고 쓰러지는 교회로 여깁니다. 그 교회가 책망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금촛대 교회이기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유혹을 역사하게 하여 거짓말을 믿고 배도케 되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진노심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케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여 금면류관을 받게 하는 금촛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주님이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안약을 주님께로부터 사서 발라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불꽃같은 눈으로 금촛대 교회에 계시면서 그 교회에 속한 자들을 보실 때 주님의 눈에 보일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의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면 그의 눈에서 피 눈물이 났을까요?

아브라함의 눈에서 피 눈물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는

이미 아브라함이 마음(중심)으로 아들 이삭을 죽인 것이고 이삭 자신도 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여 버린 것으로 인하여 잘못된 것들로 가려졌던 것이 온전히 낮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눈에 안약을 주님께로부터 사서 발라보게 된 것입니다.

금촛대 교회에 속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며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 배임 받기까지 신앙정절을 지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주님의 불꽃같은 눈으로 살펴서 조금도 합당치 않은 것이 있으면 전부 드러내서 빼내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 주님은 피눈물 나는 안약을 주셔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자신의 우상단지 같은 것을 잘라버리게 하여 결국은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꽃같은 주님의 눈은 사랑의 불인 것입니다.

15절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눈 같고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눈 같다.” - 금촛대 교회 가운데에 계신 주님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눈 같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발은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말합니다. 주님이 금촛대 교회에 속한 계시록의 수신자들 보다 앞서서 가셨으니 그 주님의 뒤를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광복과 모욕, 고난을 많이 당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영화로운 면류관과 영광의 관으로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는 모두 영광의 생애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현재 금 촛대 교회에 나타나 보인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 그대로를 따라 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제1부 사도영성 그 이론적 배경(7)

제1장 「사도영성」에 대한 이해

〈지난호 이어서〉

“마이클 호튼”(Michael Scott Horton)은 “성경은 인간 전체를 단순히 정신, 영혼 또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인격체로 다룬다.”고 밝히며, 인간의 참된 자이는 자아의 전체, 즉 ‘몸과 영혼’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 본질과 함께 고려해야 할 인간의 본질에 관한 관점에서 이해할 것으로 말하고 있다.

“영혼과 몸의 구별은 본질에 관한 어떤 사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의 경륜을 기초로 그 정당성이 입증되며 은혜의 경륜 속에서 신자들은 자신의 영혼이 육체적 죽음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 받는다. 우리는 신적 본질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도 이 이상으로 추측해서는 안 된다.”

‘존 머리’(John Murray)는 인간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따르면, 몸과 영혼은 분리될 수 있지만 원래 분리되도록 의도된 것은 아니며 우리가 전인격적인 육체적 부활까지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도 바울의 관점에 대해 일치하는 주장을 다

홍향표 목사
사도영성신학원장



음과 같이 펼치고 있다.

“인간은 육체적이며 그러므로 이 진리를 표현하는 성경적인 방식은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몸이라는 것이다. 성경은 인간의 영혼 내지는 영을 먼저 창조한 다음 육체에 넣어진 것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육체적인 요소는 부속물이 아니다.”

성경에는 ‘영적’ 또는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있어도 명사형으로 ‘영성’이라는 단어는 없다. ‘신령한’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따라서 성경을 헬라의 철학을 통해 해석하지 않는 한 결코 영성의 신비주의적 사상을 찾을 수 없다고 하겠다.

성경은 성도의 구원의 전 과정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육체적 고행이나 수련과 혼란을 통한 행위적 구원이 아니다. 의식과 교묘함의 목상이나 관상을 통해서 신비의 세계로 초월하거나 내재적인 삶에서 신령한 것을 찾고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려는 어떤 ‘영적’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백성으로 ‘말씀에 따라 산다’는 성경적 윤리에 따른 실천적인 삶을 의미함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5. 신학적 ‘사도영성’ 이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생기가 넘치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적인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영성’이라는 말이 기독교에서만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에 대한 옥스퍼드 백과사전(The Oxford Encyclopedia of the Reformation)에서는 ‘영성’과 ‘경건’을 의미론적인 구분 없이 경건 항목에서 영성을 통합해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영성’이라는 용어가 기독교 이외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분명한 의미를 확정하기가 어렵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영성이라는 표현 대신 ‘경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 이유는 종교개혁자들과 특히 ‘칼빈’이 영성이라는 말 대신 경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며, 경건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이면서 기독교의 독특한 영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전 세계적 범위에서 영성이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일반 영성과 다른 ‘사도영성’의 신학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사도영성’이 일반 영성과 구별되는 특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점이며, ‘일반 영성’이 ‘역사적 인격의 영성의 정신과 사상과 삶을 본받으려는 인본적인 영성’인데 반하여 ‘사도영성’은 ‘역사적인 예수의 정신과 삶을 계승하려는 인본적인 요소를 가질 뿐만 아니라 친히 하나님인 예수와 수직적인 교제와 하나님 중심의 영성’인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日本, 그리고 獨島와 韓國(2)

〈지난호 이어서〉

일본이 독일처럼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식민지로 피해자인 우리를 자국하는 이유는 미국이 전쟁을 지휘한 히로히토 일왕을 그대로 뒀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쟁에 책임자이자 사람을 용서하고 그대로 두니 일본국민은 세계 대전에 대한 죄책감도 못 느끼고 있는 것이다.

히로히토는 그가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한 측근이 맥아더 장군의 묘소를 찾겠느냐? 고 하니 거절한 사람이다. 바로 배은망덕한 자이기 때문에 죄책감도 모르고 침략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전형적 일본인이다.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에 독도는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는 울릉도

(무릉)와 독도(우산)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두 섬이 6세기 초엽(512년) 신라가 복속한 우산국의 영도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독도에 대한 통치 역사는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도로 전범재판에서 맥아더 앞에 서있는 일왕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독수리 앞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병아리 같았으리라. 사형! 이라는 한마디면 그는 즉시 죽는다. 그런데 당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꼭 불독과 같이 생긴데다 잔뜩 찌프린 얼굴로 기회를 노리고 있는 모습을 사진에서 볼 수 있다. 독도 등 동아시아 영토 갈등의 원인은 과거가 작 못을 청산하지 못한 일본이 크게 반성하여야 한다. 독도는 우

리 땅이다.

조선의 제4대 왕인 세종의 재위기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세종실록>에 수록된 전국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영인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활자본, 1454년(단종 2)에 완성되었다. 편역상 <세종실록>이라 부르는 163권 154책 가운데 지리지는 권 148~155의 8권 8책에 해당하며, 328개 군현의 지지(地誌)가 기록되어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는 1454년에 완성되었으나 이미 바탕이 된 것은 1424년에 세종의 명령으로 시작되어 8년 만인 1432년에 완성된 <신찬팔도지리지 新撰八道地理志>였다. 따라서 이 지리지의 내용은 세종 초기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신찬팔도지리지>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은 아니다. <신찬팔도지리지>가 작성된 이후 세종 때에는 최윤덕·

김종서 등의 지휘 아래 지금의 편안도, 함경도 북부지역 일대를 개척하여 압록강·두만강 일대에 4군 6진을 설치하는 등의 영토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 일대의 기록이 첨가되고 내용이 재정리 된 것이다.

내용은 권148에 한성부·개성·경기도, 권149에 충청도, 권150에 경상도, 권151에 전라도, 권152에 황해도, 권153에 강원도, 권154에 평안도, 권155에 함길도로 실려 있다. 각 도의 기록 양식은 도에 관한 총체적 개괄을 앞에 실고, 계수관(界首官) 별로 소속 군현의 지지를 기록했다.

〈다음호에 계속〉

최순길 목사
수목원교회
본지 논설위원



지저스타임즈는 광고와 구독료로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 및 JTNTV방송 독자 제위께

본 신문사와 인터넷신문 JTNTV방송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일터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저스타임즈와 JTNTV방송은 선교비 및 광고비와 구독료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간 48,000원은 우편요금과 종이 값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자 여러분의 자유로운 납부제도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서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본보와 JTNTV인터넷방송의 운영을 위하여 끊임없이 구독료와 선교비를 보내주시는 모든분들께 직원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껏 구독료와 선교비를 보내지지 않은 독자님들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길 원하며 내내 강전하시길 바랍니다.

지저스타임즈
발행인 정기남

· 후원 계좌 하나 : 758-910292-36807 정기남
농협 : 455030-56-005509 정기남
우체국 : 110-003-518810 정기남

계좌로 구독료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독자의 실명으로 보내주시며
010-5468-6574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존경하는 독자님들의 구독료로 언론방송신문을 도와주십시오. 1년 48,000원



지저스타임즈
THE Jesus Times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TEL 070)8230-0034, FAX경용 032)672-3031, H.P 010)5468-6574
E-mail : jtppress@hanmail.net / jtntvcjp@naver.com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 방송 사장
· 라이프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백성TV 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부모를 공경 하는 삶

성경: 잠언 30장 17절 찬송가 31장

그 낡은 부모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자녀의 징벌을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을 본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란 황량한 곳에서 무덤도 없이 죽고 말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강한 경고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장 11절과 같은 주제에서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경외하라 라고 명령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부모 밖에 없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에서는 낡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복을 누리며 사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 것입니다.

제목: 내 삶에 목적지

성경: 잠언 30장 18~19절 찬송가 597장

인생의 삶을 통하여 본절의 자지는 경이롭다고 여기는 네 가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취라고 번역 된 이 단어는 행동의 과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늘, 땅 위, 바다 위, 그리고 사람 간에 발생한 동작을 열거함으로써 목적 없이 떠도는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느 것도 쉽게 추적 할 수 있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보다 의미 없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좋은 부부가 되길 위하여

성경: 잠언 30장 20절 찬송가 449장

앞 절과는 달리 본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특권을 왜곡되게 사용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경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19절의 남녀간의 관계가 합법적 결혼인 관계라면 본 절은 성적 관계를 직업으로 삼는 자를 기록하면서 남녀가 만나 연애에서 결혼으로 완성되는 오묘

함을 담고 있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는 길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돌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가정인 것입니다.

제목: 합당한 자리

성경: 잠언 30장 21~23절 찬송가 289장

이 세상에 시끄럽고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23절에 나타난 것들에 공통점은 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 자리를 이탈 했을 때 이는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임금도, 배부를 수도 시집도, 유산도 이어 받을 수 있는 이치지만 그의 합당한 자가 그 자리를 누리며 살 때 비로소 가정도 사회도 더 나아가 한 나라도 평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목: 자연 속에 발견한 지혜1

성경: 잠언 30장 24~26절 찬송가 79장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속에 나타난 지혜를 본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강하지 않은 듯하여 보이지만 그 여를 내 하는 수고로움이 겨울을 지내기 위한 지혜로운 수고입니다. 사반이라는 산 너구리는 연약하고 겁이 많아 누구든 보면 바위틈으로 숨어버리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산다하여도 정말 멋있게 살 수 있는 것은 저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내 어떤 원수도 주께서 대신 갚아 주실 것을 믿기에 주께 온전히 숨을 쉴 아는 지혜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자연 속에 발견한 지혜2

성경: 잠언 30장 27~28절 찬송가 351장

오늘 본문은 앞절과 이어지는 자연 생태계 속에서의 지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메뚜기 떼가 이동하면 한 지역이 삼시간에 황폐해지는데 이 속에는 엄청난 규율과 질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도마뱀은 손에 잡힐 만큼 작은 듯하나 그 어느 곳 하나 안 가는 곳이 없는 모습을 말하고 있다. 주의 군사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을 위에서 이다.

제목: 당당한 삶

성경: 잠언 30장 29~31절 찬송가 524장

본문의 세가지 예는 동물세계에서 네 번째는 인간을 관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4가지의 특징은 모두 절대적이며 당당하다는 공통점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당당하게 사는 이가 있는 반면 가진 것이 있어도 당당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도우심을 믿고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가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목: 입을 막은 연후에

성경: 잠언 30장 32절 찬송가 439장

입을 막으라는 본절의 표현은 죄를 짓고 난 후의 치욕과 뉘우침의 침묵 그리고 고백하고 사악한 생각을 말로 표출하기 전에 스스로 억제하는 자기 절제의 침묵의 표현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보면 말이 기도보다 앞선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은 기도와 말씀이 그 바탕이 되어 움직여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릎으로 말하고 무릎으로 일하는 즉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 모든 것들을 주께로

성경: 잠언 30장 33절 찬송가 337장

본절의 의도는 분노가 시작된 마음에 압력을 가하여 더 큰 문제로 나아가게 하지 않음으로써 평화와 조화를 이루라는 충고를 주기 위함입니다. 한 박자 쉬어 생각하고 한 걸음 뒤에 서 상대를 생각한다면 분노와 다툼의 문제는 줄어 들게 되고 우리는 사랑의 교제와 연합을 성도 간의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무거운 짐 대신 저주시고 단 1분 1초도 나를 떠난 적 없으신 신실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목: 사랑에 매여

성경: 잠언 31장 1~2절 찬송가 314장

브루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자란 뜻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솔로몬 또는 이방의 왕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31장은 통치자로써의 책무와 이상적인 아내에 대한 면모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은 편지라 할 수 있는데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이 사람이 정말 잘되길 바랄 것이고 잘 못되는 것은 원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정상 일 것입니다. 나를 향한 절대적 사랑을 누리며 느끼며 살길 바랍니다.

제목: 내 힘과 관심을 쏟아야 할 곳

성경: 잠언 31장 3절 찬송가 397장

힘을 준다는 것은 그것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준다는 것인데 왕으로써 자신이 돌보아야 할 일 해야 할 일들을 이루고 그 외의 것들에 더 시간을 보내게 될 경우의 위험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보단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에 앞장선다면 이것은 멸망의 길이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내 언어와 행동이 누구 편에 서 있는 가를 점검하고 주의 자녀로써 그 신분에 맞는 삶을 구현하며 살아갑시다.

제목: 주님 주신 기쁨은

성경: 잠언 31장 4절 찬송가 390장

본절의 반복을 통하여 강조하는 바는 술과 독한 술을 마시고 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독주를 즐겨 마심으로 인해 실수를 수반하며 향락과 쾌락으로 전락해버린 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들의 이유는 쾌락과 향락을 그 안에서 추구하고 있고 취함으로 인한 범죄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술과 쾌락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 누리며 살길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고 이를 받아 그 기쁨으로 충만해야겠습니다.

제목: 하나님나라 백성의 삶

성경: 잠언 31장 5절 찬송가 360장

본절은 공의를 집행하는 것에 대한 의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위치는 법을 예속 또는 파괴 시켜 버릴 수 있을 만큼 막강한 자리

인데 독주로 인한 오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남녀노소의 구분도 빈부의 차별을 두지 않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택한 백성으로써 소자(小子)와 약자들을 위한 삶이 이 땅에 구현해 나가십시오.

제목: 고된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하여

성경: 잠언 31장 6절 찬송가 300장

본절은 술이 그와 같은 형편에 있는 자들의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며 회복시키는 효력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뇌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자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전보다는 발전했다고 하나 사람들이 행복지수는 전보다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상처받고 아프고 지친 영혼들을 교화와 우리가 이들을 반겨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용이 이들을 재생산 시켜 세상으로 재파송 시키는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 목사코너

메르스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한 번쯤은 한국교회를 향하여, 목회자를 향하여 나아가 성도들에게 한 번쯤은 던지고 싶은 말이다. 인생의 삶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 삶에 유익이 있어야만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고 말한다. 그러나 조금 지금은 중동호흡기 중후군 메르스로 인하여 뉘우송하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재앙이라고 말하며 언론 또한 이를 확대 시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중동을 다녀온 한 사람으로 인하여 6월14일 기준 145명으로 확진이 나타났는데 10명이 치료되었고, 14명이 사망하였는데 그중 72명이 최고의 의술을 지칭하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발생하였기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메르스는 바이러스 질환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수많은 질병 중 하위개념으로 엄격하게 무서운 질병이라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상위개념인 질병 인에는 다양한 병이 있으며, 죽음에 이르는 병은 다양하며, 바이러스의 일종인 독감이 메르스 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메르스를 통하여 보이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필자는 감히 지금의 메르스 질병의 사태는 "한국교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부분이다" 말할 수 있다.

지금 한국의 복음의 사태는 극에 달하여 위험 수준을 넘어고 있다. 지금의 한국을 바라보자 성경과 위배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정당화 되고 있다. "죄를 범하여도 회개 하라 말 못하며, 이단을 이단이라 못하고,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을 잘못했다 말 못하며, 음란과 쾌락 된 행위인 동성연애 등을 당연시 하는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파할 수 없을 것

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기에 메르스와 최악의 기쁨의 사태라는 것을 통하여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에 지금의 모든 사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일부만 일 것이다.

성경 "히12장6절-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는나니.....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 아들이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범하며 바른길로 가지 아니하면 깨우치시며, 바른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첫째로 잘못됨과 죄임을 알게 하시며, 둘째로 물질의 어려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셋째로 질병을 통한 깨달음을 주신다. 그러함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아니할 때 최후의 방법이 죽음을 통하여 구원 하시려한다. 조금 지금의 질병인 메르스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기에 죄를 깨우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성도들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 이제라도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심을 바로 깨닫고 우상숭배와 더불어 동성연애 등 죄악 된 행동은 즉시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무릎 꿇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깨어나라" 메르스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자"



부총회장 광동훈 목사
대신교회 석수

소진우 목사 2013년-2015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열방부흥선교회의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 TV, 신문 칼럼리스트

1-3	은혜교회(유경재 목사)	4-9	신교지명문
7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11-13	행복한교회(박성일 목사)
8-10	성산교회(신승종 목사)	18-20	청원교회(최준원 목사)
15-19	신교지명교회(유정재 원장)	24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21-27	예복교회 특별기도성회(소진우 목사)	25	서경교회(김정수 목사)
28	세계영교회(정재원 목사)		
29-31	한기전교회(한수원 목사)		

2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2-8	2주연속부흥회(예복교회)
3	간월산금식기도원(이영금 원장)	9-15	2주연속부흥회(예복교회)
4	간월산금식기도원(유정재 원장)	16-16	일마누엘교회(이성원 목사)
5-8	금산말마누엘수양원(이수영 원장)	30-31	송구영신예배(한수원 목사)
12-15	광운기도원(김원재 원장)		
19-22	간월산기도원(이영금 원장)		
28-29	천문기도원(최정수 원장)		

4	노회선교위원회(예배)	1-3	모란순복음교회(안영명 목사)
7	대신미디어(예배)	4	농곡명성교회(송환철 목사)
7-9	대신교회	6-9	소망교회(조성봉 목사)
14-15	장기교회	13-16	복합성교회
17	부흥사역연구원	17	한일산기도원
20	천보산기도원	19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21-23	인천성산교회	20-22	영광교회
27	신교지명교회(예배)	27-30	광운기도원
28-30	관악성교회		

3-5	원천교회(최정수 목사)	7-10	광운수양원(박성일 원장)
16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13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14-17	축복교회(박성일 목사)
		21-22	장기교회
		26-1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1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1-3	모란순복음교회(안영명 목사)
12-14	남예교회(최정수 목사)	4	농곡명성교회(송환철 목사)
19-21	소망교회(조성봉 목사)	6-9	소망교회(조성봉 목사)
25-31	복합성교회	13-16	복합성교회
		17	한일산기도원
		19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20-22	영광교회
		27-30	광운기도원

3-6	간월산기도원(이영금 원장)	1-3	모란순복음교회(안영명 목사)
9-12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4	농곡명성교회(송환철 목사)
16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6-9	소망교회(조성봉 목사)
17-19	대구명성교회	13-16	복합성교회
21	간월산기도원(유정재 원장)	17	한일산기도원
23	성교회	19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24-26	대구명성교회	20-22	영광교회

3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7-10	광운수양원(박성일 원장)
4-6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13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11-14	장기교회(한재 원장)	14-17	축복교회(박성일 목사)
18-21	간월산기도원(이영금 원장)	21-22	장기교회
25-28	천문기도원(최정수 원장)	26-1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1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1-3	모란순복음교회(안영명 목사)
12-14	남예교회(최정수 목사)	4	농곡명성교회(송환철 목사)
19-21	소망교회(조성봉 목사)	6-9	소망교회(조성봉 목사)
25-31	복합성교회	13-16	복합성교회
		17	한일산기도원
		19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20-22	영광교회
		27-30	광운기도원

3-6	간월산기도원(이영금 원장)	1-3	모란순복음교회(안영명 목사)
9-12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4	농곡명성교회(송환철 목사)
16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6-9	소망교회(조성봉 목사)
17-19	대구명성교회	13-16	복합성교회
21	간월산기도원(유정재 원장)	17	한일산기도원
23	성교회	19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24-27	대구명성교회	20-22	영광교회

3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7-10	광운수양원(박성일 원장)
4-6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13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11-14	장기교회(한재 원장)	14-17	축복교회(박성일 목사)
18-21	간월산기도원(이영금 원장)	21-22	장기교회
25-28	천문기도원(최정수 원장)	26-1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1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1-3	모란순복음교회(안영명 목사)
12-14	남예교회(최정수 목사)	4	농곡명성교회(송환철 목사)
19-21	소망교회(조성봉 목사)	6-9	소망교회(조성봉 목사)
25-31	복합성교회	13-16	복합성교회
		17	한일산기도원
		19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20-22	영광교회
		27-30	광운기도원

3-6	간월산기도원(이영금 원장)	1-3	모란순복음교회(안영명 목사)
9-12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4	농곡명성교회(송환철 목사)
16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6-9	소망교회(조성봉 목사)
17-19	대구명성교회	13-16	복합성교회
21	간월산기도원(유정재 원장)	17	한일산기도원
23	성교회	19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24-27	대구명성교회	20-22	영광교회

21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7-10	광운수양원(박성일 원장)
29-31	신년축복을 위한 산성기도	13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2	한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1-3	모란순복음교회(안영명 목사)
4	안양광운교회	4	농곡명성교회(송환철 목사)
5-8	소망교회(박종수 목사)	6-9	소망교회(조성봉 목사)
11	오현제교회	13-16	복합성교회
12-14	온양종교회	17	한일산기도원
18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19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19-21	갈산교회	20-22	영광교회
25-28	담심리교회	27-30	광운기도원
31	간월산기도원(이영금 원장)		

2-5	간월산기도원(이영금 원장)	1-3	모란순복음교회(안영명 목사)
9-11	원천교회(최정수 목사)	4	농곡명성교회(송환철 목사)
15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6-9	소망교회(조성봉 목사)
16-19	광운기도원(한재 원장)	13-16	복합성교회
23-25	대구명성교회(안영명 목사)	17	한일산기도원

4-7	영광교회(주은석 목사)	7-10	광운수양원(박성일 원장)
10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13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10-20	불멸부흥교회(예복교회)	14-17	축복교회(박성일 목사)
25-27	소망교회(김주영)	21-22	장기교회

1-3	진접교회(송일목 목사)	1-3	모란순복음교회(안영명 목사)
7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4	농곡명성교회(송환철 목사)
15-18	모리아교회(조선희 목사)	6-9	소망교회(조성봉 목사)
22-25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13-16	복합성교회
29-1	비전교회(김원우 목사)	17	한일산기도원

5	천보산기도원(유정재 원장)	1-3	모란순복음교회(안영명 목사)
6-9	에스겔기도원(이영금 원장)	4	농곡명성교회(송환철 목사)
13-16	김해배움터(이순자 원장)	6-9	소망교회(조성봉 목사)
20-23	천문기도원(명숙 원장)	13-16	복합성교회
27-30	에덴금식수양원(양희옥 원장)	17	한일산기도원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예복교회

2015 예장개혁총회 교역자 하계수련회 열어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총회장 김정열 목사) 전국 총회교역자 하계수련회를 지난 6월8일~10일까지 강원도 속초시 사당골길 금호실업리조트에서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총회교육부가 주관하고 대회장 장한국 목사의 인도와 특강으로 성령이 충만한 영적충전을 가졌다.

총회는 이 기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표어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새로워지는 총회(딤후 3:5)라는 주제로 열린 전국 총회교역자(개혁)하계수련회가 8일 오후 7시30분 대회서기 임순종 목사의 인도로 개회예배가 시작되어 총회장 김정열 목사의 환영사, 교육부장이며 대회장인 장한국 목사의 인사가 있었다.

이날 김학순 목사(경기중경노회장)의 기도로 시작된 예배에 박금수 목사(대전노회서기)의 성경봉독(출2:25~28절)과 대한노회원일동, 윤글로리아 목사의 특송이 이어졌다. 총회장 김정열 목사는 "여호와 편(便)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대회장 장한국 목사(부총회장/대한노회장)는 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요한복음 삼/세 유월절의 영적진리에 대해 특강을 했다. 이번 특강을 통해 총회원들은 목회에 있어서 큰 감동과



영성회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힘을 얻었다며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렸다.

따라서 각 노회별로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자유시간을 갖

고 폐회예배를 끝으로 사랑의교재를 나누며 2015 개혁총회 전국총회교역자 하계수련회를 마치고 아쉬움만 목회현장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2015 개혁총회 하계수련회는

영적회복을 위한 수련회로

노회결속과 총회의 화목단결로 새힘을!

고 속초 관광에 나섰다. 이날 두 번째 특강은 저녁7시30분부터 총회장 김정열 목사가 "그리스도의 성품"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아울러 개혁총회는 10일 아침 6시30분 강성희 목사(부총회장)의 예배인도와 대회장 장한국 목사

장 장한국 목사, 대회서기 임순종 목사, 대회총무 조재호 목사, 대회회계 조순형 목사, 찬양위원장 (제1)윤글로리아 목사, (제2)유순옥 목사, 준비위원장 조재호 목사, 준비위원장 박민규 목사 등이다.



장한국 목사, 예장개혁총회 하계수련회 특강

요한복음 3 「세 유월절의 영적진리」

요 2장의 첫 번째 유월절은 13절부터 23절까지 주님이 성전 청결한 사건이요. 이는 성전을 청결하신 예수님이 예수 믿는 심령성전 된 우리들을 신앙의 잘못된 요소들을 다 청결케 해주시는 영적진리로 깨우쳐 주신다. 즉 양과 소와 비둘기를 내 쫓고 환전상의 돈을 없으신 것인데 여기에서 양은 잘못된 구원관을 바로 잡으신 것이다.

예수의 구원을 은혜로 받은 우리인데 이를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자기 행위를 앞세우는 것. 또 소를 내쫓으심은 잘못된 신앙관을 올바르게 잡으시는 것이다. 즉 내 힘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여 복을 받고 구원받고 한다는 것은 오직 내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수고하고 또 성령이 나를 도우로 하여 성령의 열매로 충성하시는 것인데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과 장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관이다.

또한 비둘기는 깨끗함, 의로움, 순결을 상징하는바 사람들의 청천을 위하여, 또 자기자랑을 하는 것 등은 모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에 배치되는 것이다. 환전상의 바퀴주는 유대인은 하늘의 복, 영광을 상징하는데 대신 받는 이방인은 세상의 복과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 하늘의 것을 버린다는 잘못된 신앙관이다.

이와 같은 것을 청결케 하신 것이 주님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 되게 하고, 산재를 되게 하여 하나님께 열납되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는, 첫 번째 유월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영적진리의 역사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유월절은 요6장 4절부터의 보리떡 다섯 덩어리, 물고기 두 마리의 특별한 표적사건이다.

(중략 www.jtntv.kr 방송 상단 신학)교육에서 자세히 볼 수 있음)

결국에는 주님과 똑같이 순교 제물로 바쳐지게 하시고 주의 재림의 때에 주님과 똑같은 영광된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에 참여한 복 있는 자이요, 이것이 두 번째 유월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이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이 영적 진리로 인하여 주님의 발자취를 끝까지 따르면서



▲장사 부총회장 장한국 목사(총회교육부장)

순교의 종들로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첫째부활의 복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요6장에 35절은 보리떡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고 친히 말씀하신 것이고, 또 54절에서 이 보리떡을 먹은 자, 즉 예수와 함께 먹고 예수와 함께 사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이것은 이미 보리떡을 먹은 자는 첫째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것 등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미 영생을 받은 자요. 그것만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고 했으니, 즉 주의 재림의 날에 첫째 부활케 하리라는 말씀이다.

6장의 결론이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바로 주님께 계시다. 라고 매듭을 지었으니 이 보리떡은 바로 영원히 하늘에서 최고의 영광인 첫째부활의 영광으로 누리며 살게 할 영생의 진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 절대 육신의 양식, 멸망의 양식으로 오병이어의 역사인 진리를 가리키시는 안 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월절에 주님이 하신역사는 요13장에 나온다.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다. 즉 예수님은 세 번째 유월절에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희생을 뜻한다(고전5:7). 출12장에 유월절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에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떠난다.

이것을 엑소더스라고 하죠. 그런데 신약에서 이 엑소더스(Exodus)를 헬라어로 목세 번 나 온다. 그 첫 번째가 히11장 22절



▲총회장 김정열 목사(총회 명예대회장)

에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것'을 예언할 때에 엑소더스라고 했다. 또 눅9장 31절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엑소더스라고 헬라어로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뱀후1장 15절에 베드로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즉 '순교하는 것'을 엑소더스라고 했다.

즉 세 번째 유월절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셔서 죽고 떠나므로 엑소더스 하신 것이고, 이 주님을 따르는 자, 즉 먼저 심령성전이 청결되어 산재물이 되어 진자로써, 두 번째 유월절인 보리떡 다섯 덩어리인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먹은 자들이 되므로 세 번째 유월절에 주님을 뒤 따라서 우리도 엑소더스 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진리이다.

그래서 세 번째 유월절에 주님이 하신 일은 대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이는 자기 사람들, 즉 자기백성들을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는 것, 피

흘리기까지 속죄 구원시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나는 아니고 불택자인 가롯 유다는 그 구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13:10,11). 그 다음 주님이 하신일은 옷을 입은 후 교훈하신 것인데 핵심이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는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를 행하면 복이 있도다. 라고 가르치신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는 정답이 요15장20에서부터 16장2절까지 나온다.

내가 이미 말한 대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함은 나를 압박한 것 같이 너희도 압박할 터이다(15:20). 그리고 16장1절 이것을 말함은 너희를 실족 지 않게 위함 이요.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살해한다고 주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다(16장1,2절).

따라서 온 세상의 기독교인들과 특히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주님이 공생애에서 하신 세 유월절의 역사가 다 적용되고 그 진리가 우리 심령을 밝혀서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자리까지 끝까지 뒤따름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 즉 산재물이 되어서 첫째부활의 진리의 말씀인 보리떡을 먹은 자들이 되어야 하고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베드로와 같이 엑소더스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진리의 말씀과 함께 신 성령이 모든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역사하시고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대한노회 2015 하계수련회 공고

■ 주제 : 주 재림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하자



장한국 목사
주시랑교회



박민규 목사
새생명교회



박명자 목사
도원생수교회



유순옥 목사
조예교신교회



· 노회 수련회 특별강사 : 노회장 장한국 목사

· 일정 : 주후 2015년 8월 17일(월) ~ 19일(수) / 2박3일

· 대상 : 노회원 부부동반 및 교단 목회자, 중국 목회자

· 회비 : 개인별 5만원

· 장소 : 강원숲체험장(강원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산 46-1)

· 복장 및 휴대품 : 간편복, 세면도구, 성경/찬송, 필기구

· 전화 : 033) 243-5340 노회서기 : 010-9621-9627

· 교통편 : 승합차 : 대기 8월 17일(월) 오전 9시30분까지 주시랑교회(노회장 장한국 목사사무)에 집결
· 승용차 : 서울에서 경춘 고속도로를 경유, 춘천시내를 지나 화천방면으로 5번국도로 직진 춘천댐이 나옴, 춘천댐에서 화천방향 2.5km를 지나 오월교(다리를 건너지 않고 좌측에 옛날 다리를 지나 오월리 방면으로 강을 끼고 1.5km 직진하여 아름다운호텔 앞에(강원숲체험장 안내표지판 있음) 이곳에서 좌회전하여 1km직진하면 됩니다.



대한노회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고호 5층)

홈페이지 : HTTP://JICN.KR ☎ : 031) 424-7612, H.P 010-4436-7060

전국 교회 주일예배 안내

☎ 게재문의 : 010-5468-6574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담임 이규필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30분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151-47
☎ 010-7474-3173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광교회

담임 전예희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 (032)505-3351

시온교회



담임 조영만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30분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동 1146-6 에스파스 B02호
☎ (070)7501-2584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소망교회

담임 서동기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63-1
☎ (02)3296-0340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강대일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 (02)433-0291(교)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담임 양삼국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 (053)741-7732, 070-4220-7735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담임 서재식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7-58 401호
☎ (031)315-8290대한예수교
장로회 실만한물가교회

담임 김만식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9시
오후 11시
오후 2시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46-9번지
TEL 043) 217-0191, 070-8666-0691대한예수교
장로회 수목원교회

담임 최순열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30분
수요일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시 교육관
매주 금요일아기기도회 밤 9시 4층 교육관서울시 구로구 오류2동 343번지
☎ (02)2683-2091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연합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

서울시 구로구 구로1동 1058번지 구로우성@상가202호
☎ (02)869-0166 Fax(02)869-0167 이사장 011-287-0317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교회

담임 홍향표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한경총 사무총장
사도영성신학연구원 원장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370-40
☎ (02)583-1955 H.P:010-7585-1955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흥교회

원로 임신형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7시 11시
오후 2시 5시

한경총 중흥총회장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0-2
☎ (02)476-7131대한예수교
장로회 과천영락교회

담임 허식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한경총 중흥총회장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535-5 센스빌딩 4층
☎ (031)416-8290

은총 기도원



원장 주은총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 매일 첫째 주(월-목)정기집회
(세계주영광 부흥사회 주관)
◇ 매일 셋째 주(월-목) 정기집회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회주관)
◇ 매일 넷째 주(월-목) 정기집회
(세계주영광부흥사대표회장)인천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 010-6327-0191, 070-7518-8195대한예수교
장로회 홍성제일교회

담임 오중설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성중앙교회

담임 정대성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낮 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 밤 예배 오후 7시30분
금요 기도회 오후 7시30분
새벽 예배 새벽 6시경기도 덕양구 화신로 260번길 66(화정농협5층)
☎ 031)974-7091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일교회

담임 이이중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 (031)714-1426, 7236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수원할렐루야농아교회

담임 임혜숙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8시
금요일 오후 9시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62
☎ (031)224-4947 H.P 010-4611-3221

주성청각장애인교회



담임 박흥수 목사 (우송초)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후 8시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8-6
☎ (02)414-1191 H.P 010-3775-5154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박순중 목사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만장-1급 ~3급자 환영)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 (033)541-0687 H.P 010-7405-9191

강릉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 교회



담임 최낙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6-12
☎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대한예수교
장로회 공덕교회

담임 서명범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8시
금요일 오후 9시충남 공주시 이길6-1(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 (041)853-9966 http://lov153.cafe24.com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박원국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7시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 (041)854-3676 H.P 018-320-1507

조에 교정선교회



담임 유순옥 목사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884- 202호
☎ (070)8632-6993 H.P 010-3035-5704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담임 소진우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9시30분
2부 오전 11시
주일저녁 오후 7시
수요일 오후 8시경기도 의정부시 노원로40 수락리비시터 2단지 옆
☎ (02)934-1232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담임 장기환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후 11시
3부 오후 1시
주일 밤 오후 6시30분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75번길 30-5
☎ (032)321-9109대한예수교
장로회 성현교회

담임 박형휘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화요일 화요일성경공부
수요일 오후 7시30분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39-17
☎ (02)593-3909대한예수교
장로회 남현교회

담임 이훈복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2부 오전 9시30분
3부 오전 11시30분
4부 오후 2시30분서울시 구로구 경인로346(개봉동)
☎ 교회(02)2618-8877-8 당회장실(02)2684-3317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생명교회

담임 박민규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00
수요일 저녁 7시00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236-4
☎ (02)385-2571/010-9621-9627대한예수교
장로회 화양동교회

담임 황원찬 목사

2015표어: 일어나 빛을 발하라(사60:1)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서울시 광진구 능동로17길 43(화양동)
☎ 교회(02)461-5975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제일교회

담임 이기웅 목사

영적대각성운동본부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일 밤 8:30경기도 광주시 목동 378번지
☎ 수양관 031)769-0692-3대한예수교
장로회 등불교회

담임 광명민 목사

◆ 예장(예측)총회장
◆ 등불교회 담임
◆ 예수능력치유센터 원장
◆ 예능부흥사관학교대표회장
◆ 지저스타임즈본사무국장
(인천지사장,언부협사무총장)인천시 남구 능해길5(송의1동)
☎ (032)891-0651, 010-2080-0651

주님의 명령임을
믿고 죽도록
충성을 다해
최선을 다짐

본사 JTNTV 신문방송
(사장 소진우 목사)은 인천시 서구
가좌동 소재 영광교회 본당에서
열린 이사장 취임식에서 제2대
이사장 정기환 목사(전원중앙교



조강수 목사 JTNTV신문방송 3대 이사장 취임식 가져

회)가 이임하고, 조강수 목사(영광교회)가 전국에서 참석한 70여명의 이사 및 지사장의 축하를 받으며 제3대 이사장 및 한국기독교

본부총합협의회 2대 대표회장으로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사무국장 박영민 목사(예장예능총회 총회장)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부이사장 장한국 목사(주사랑교회)의 기도과 한요한 선교사(C국, 미얀마)의 트럼펫연주, 찬양사역자 권선희 전도사의 찬양, 영광교회 합시찬양단의 축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다.

서명성 목사(인천현동교회원로/인천기독교조찬기도회장)는 록 10:14~15절을 인용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합심기도로 본사와 언론부총합협의회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어 푸미오리무용단(김창숙 전도사)의 몸찬양, 유순옥 목사(운영이사/회계)가 봉헌기도를, 신임이사장 및 대표회장 조강수 목사와 정기환 목사는 감사패와 취임축하패 증정



을 가졌다. 신임이사장/대표회장 조강수 목사는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부족한 중을 이사장으로 또는 언론부총합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추대해주셔서 목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큰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따라서 주님이 내게 가르쳐주신 말씀 중에 첫 번째도 둘째도 셋째도 아멘이며, 아울러 신문방송이 전국과 세계를 향해 엄청난 부흥을 일으킬 줄로 믿으며, 대표이사장으로서 모든 이사들이 주님이 중심이시기 때문에 이 언론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주님이 맡기신 주의 명령에 크게 이루어지리라 믿으며, 예수 안에는 어떤 법도 없듯이 주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자며 다짐했다.

두 번째 주의 종은 은퇴가 없으며, 교회에서는 은퇴를 해도 주의 일에는 은퇴가 없다. 그래서 주님 만날 때까지 묵묵히 주님의 일을 하느라 죽도록 충성하는 것,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것, 이 일

이 종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 만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힘쓰며, 기도와 사람으로 협력하며 본사와 언론부총합협의회 발전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우리가 합심단결하면 한국교회의 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문사가 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며, 그러므로 끊임없이 기도와 격려로 후원해 달라며 취임사를 전했다.

이어 박영민 목사(수석상임이사), 홍창표 목사(상임이사/환경총사무총장)가 격려사를, 최순길 목사(자문/논설위원), 이규필 목사(부이사장/부총장)가 축사를 했다. 따라서 사장 소진우 목사(예복교회/연수원장), 대표이사 정기환 목사는 신문방송은 여러 이사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에 성장해 왔다고 말하고, 사무총장 박영민 목사(예복교회 총회장)의 광고와 한 표창장으로 추대해주셔서 목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큰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한편 대표회장 조강수 목사는 상임이사 박영민 목사(상임회장)의 기도으로 첫 번째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문방송 발전을 위하여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사들의 후원회비, 언론부총합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로 1박2일 언론부총합 연수를 갖게 되며, 특별세미나강사는 연수원장 소진우 목사(사장), 대표회장 조강수 목사(이사장)가 나서기로 했다.

한편 본사와 인터넷 (www.jtntv.kr)방송은 국내 지사와 해외 지사간의 MOU를 체결하고 국내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독교계소식을 교환하며 전도에 힘쓰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JTNTV방송을 통해 참고할 수 있음.

영광교회, '소향 초청 2015 찬양의밤' 큰 감동



수익금 전액, 어려운 학생 장학금 및 노인 복지기금에 쓸 것

인천영광교회(담임 조강수 목사)는 지난 6월 13일 저녁 소향과 함께하는 2015 찬양의 밤 특별 출연으로 많은 성도들의 가슴을 때려서 감동적인 찬양의 밤이 되었다.

담임 조강수 목사는 소향 초청 찬양의 밤 콘서트에 영광교회를 찾아준 많은 성도들과 이웃주민들을 환영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도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면서 우리 영광교회를 찾아준 여러분을 뵈게 되어 너무나 반갑다면서 환영하는 자리에서 시 91:1~7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특별초청으로 등단한 찬양사역자 소향(Sohyang)은 대표곡<인연, You Raise Me Up,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불후의 명곡 홀로 이리 랑>등 다섯 곡을 불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소향은 중간 중간 자신의 간증과 예화를 들려 신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등 은혜를 끼치기도 했다. 그

의 예화를 들어서 美 외출타기 달인 '닉 왈렌다'가 2012년 세계적인 명소 나이가가라 폭포 위를 길이 196m 폭 5cm의 외줄을 타고 건넌 이야기를 시작으로 장대 하나를 손에 들고 몸의 균형을 잡고 외출타기로 성공하자 5000여 관중이 닉 왈렌다의 외치며 환호했다. 그때 닉 왈렌다는 환호하는 군중을 향해 내가 짐을 지고 외출을 탈 수 있는냐고 묻자 모든 군중은 그 때 닉 왈렌다는 환호하는 군중을 향해 내가 짐을 지고 외출을 탈 수 있는냐고 하자 모든 군중이 그렇게 될 줄 믿는다고 소리쳤다. 그때 닉 왈렌다는 환호하는 군중을 향해 내 등에 업힐 분은 손을 들고 하자 모두가 조용했다.

그 누구도 손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 다시 내 등에 업힐 사람이 있다면 나오라고 하자 그때 한 사람이 용감하게 결단을 갖고 나왔고, 결국 그 사람이 등에 업고 외출을 타고 나이가가라 폭포를 건너왔다고 한다.

소향은 닉 왈렌다의 외출타기의 성공담을 예화를 들면서 만약 여러분이라면 무시무시한 나이가

가라 폭포를 외출타기 달인의 등에 업힐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고 묻고, 여러분 개개인이 예수님의 등에 업혀 있는냐고 물었다. 또한 소향은 성도들에게 천국은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잘나고 못하고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키가 크고 작으냐에 따라 천국 가는 등급이 선정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자신이 온전히 예수님의 등에 업혀 있는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다시 한 번 물었다. 내가 사람을 업고 외출을 탈 수 있는냐고 하자 모든 군중이 그렇게 될 줄 믿는다고 소리쳤다. 그때 닉 왈렌다는 환호하는 군중을 향해 내 등에 업힐 분은 손을 들고 하자 모두가 조용했다.

그 누구도 손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 다시 내 등에 업힐 사람이 있다면 나오라고 하자 그때 한 사람이 용감하게 결단을 갖고 나왔고, 결국 그 사람이 등에 업고 외출을 타고 나이가가라 폭포를 건너왔다고 한다.



피종진 목사 7월 국내·외 성회 일정

1(수)~2(목)	제191차 해외성회(191st Overseas Assembly)
3(금) 오후	미국(U.S.A) 필라델피아 세계NYSCC Conference 주회 Nyscc World Mission(총회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최교선 목사) 미국(U.S.A) 아틀란타 아가페선교교회강진구 목사 ☎(678)462-7526
5(주일) 오전	미국(U.S.A) 애틀랜타 새남정로교회류근준 목사 ☎(678)380-4130
6(월)~9(목)	미국(U.S.A) 잔스크리프트교회이승훈 목사 ☎(770)623-0004 주회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한기홍 목사) 영국대대표문 조영기 목사, 총회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영기호 목사 서울 임마누엘교회(최옥순 목사) ☎(02)436-1777
13(월) 오전	경기도 광주 성산기도원원장 김명용 목사 ☎010-2235-3927
15(수)~17(금)	영동 왕산교회(김종성 목사) ☎010-9423-9191
17(금) 저녁	미국(U.S.A) 캘리포니아 애나하임교회(이선자 목사) ☎(714)220-7660
19(주일) 오후	미국(U.S.A) 서부지역 연합성회
20(월)~22(수)	미국(U.S.A) 동부지역 연합성회
23(목)~25(토)	NYSCOHQ USA New York Family Conference KOREA 2015 (총회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최교선 목사, 준비위원장 류재이 - 박재준 목사) 장소: 대진 침례신학대학교 대강당 ☎(042)635-6691
27(월)~29(수)	
30(목) 오후	

가보고 싶은 교회, 은혜가 충만한 영광교회, 만나보고 싶은 조강수 목사(JTNTV방송 언론부총합협의회 대표회장)...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당회장 조강수 목사
Pastor Gang Soo-gho

영광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표어 : 창세로부터 주님 재림시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구하는 교회

▶ 영광교회 찾아오는 길






· 부 목 사 : 이주홍

· 협력선교사 : 김종록, 이두원, 차명호, 권오성

· 장 로 : 임청수, 이청옥, 심재현, 김준현, 고재훈

· 심방전도사 : 원명숙

· 교육전도사 : 이민규

· 전 도 사 : 양승숙

· 성가 대장 : 심재현

· 지 휘 : 박성진, 왕소정

· 반 주 : 권혜영, 홍은지, 박진주, 이요한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	학생부 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오전 8:00	밤 11:00	(토)오전 4:30
주일 찬양 예배	새벽 예배	주일학교 예배	청년부예배
오전 6:30	오전 4:30	주일오전 1:00	(토)오전 7:00

· 칼럼 ·

최고 좋은 약은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태어난 어린이를 세상에 주신 목적은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는 귀엽고 만지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 것이다. 나와는 상관없는 데도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린이를 보면 아 귀엽다! 그리고 만지려고 한다. 이 때 품에 안긴 아이는 방긋방긋 웃는다. 그리고 그 아기는 물라보게 속속 자란다. 아기는 사랑과 칭찬을 먹고 자란다. 관심과 배려는 아기의 성장을 돕는다.

사람이나 채소나 생명체는 물이나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자라도록 설계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는 돈보다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

이다. 넘어져 아파 울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응, 그래 많이 아프지?' 그러면 아이는 위로를 받고 울음을 그친다. 그런 아이의 울음이란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한번 더 사랑해 달라'는 본능적인 욕구의 표현이다.

우리는 가끔 마스크를 통해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같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격리된 채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한다. 이런 사람들은 전염병도 그렇지만 고독과 힘든 싸움을 해야 할 것이다. 사람이 아플 때, 메르스와 같은 백신이나 약이 뚜렷이 없을 때, 산삼이나 약초같은 민간요법을 찾는데 그것이 특효약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지

극한 사람과 정성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꼭 같은 환자로 할지라도 그냥 무관심하게 방치해둔 자와 정성으로 보살핀 환자를 비교할 때 끊임없는 사랑을 받은 환자가 훨씬 더 빨리 쾌유하는 것을 보게 된다.

사랑은 만병통치약이다. 그리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은 무한한 에너지와 참출하는 발전소와 같은 것이다.



박형휘 목사
성현교회
본보 상임이사

더 나아가 사랑은 굳게 닫힌 마음을 열게 하며 죽을 사람도 살리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도 한다.

신약성경을 읽노라면 바울이 그의 서간 마무리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했다. 거룩한 입맞춤이란 바로 사랑이며 배려와 관계이다. 아픈 사람, 고단한 사람, 병에 걸린 사람, 상처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며 위로하라. 그리고 음료수나 과일을 손에 쥐어 주며 기도 해주라.

그 기도는 생명의 보약이며 치료는 기적을 일으킨다. 우리는 이 숭고한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어디가 아프면 한약탕재를 끓여 아픈 사람에게 먹였다. 그 때 한약의 효험보다 한약을 끓이는 사람의 정성에 감복하여 환자는 낫고자 하는 열망과 그 정성과 보살핌으로 사랑을 느끼며

병이 호전되기도 했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헌신하는 모습은 바라보기만 해도 웅장한 질병은 다 치유된다.

대부분의 질병이 심령의 문제에서 기인하기에 우리는 고독과 질병으로 고달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보혈, 믿음과 섬김의 약재를 송송 썰어 넣은 보약을 끓여서 나누어 주자. 그리고 그 보약을 마시는 자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노라!'고 힘주어 따뜻하게 말해주라. 그러면 그에게 어떠한 절망과 불치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급속히 치유될 것이며 곧 자리를 박차고 회복하게 될 것이다.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보혈과 사랑의 약을 공급해 주심으로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서 건져내어 주셨듯이...

시예찬



정기환 목사
전원중앙교회담임
(영예이사장)

시에는 선율이 있어서 좋습니다. 시는 노래를 타고 입장을 하지도 시는 삶에 지친 이들에게 여유를 선물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이들에게는 희락을 선사하고요 인생의 여정 중에 침표를 찍어 줄 수 있는 곳도 역시 시가 담당합니다. 시는 복잡한 세상에서 압축언어로 다가와서 좋습니다.

시는 최상의 도구로 잘 다듬어진 언어의 환영장이기도 하지요, 시는 자신의 마음을 실어가는 배와 같습니다. 시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의미를 전달하는 독특한 육상행이기도 합니다.

시는 자신을 존재케 해준 주인 되신 시인을 공격하는 어떤 무기에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 줍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숨겨진 문자로 교신하는 특이성을 갖기도 합니다.

시는 미칠듯한 뜨거움이 없으면 탄생하지 못하는 고약한 상품도 지니고 있지요. 까슬러운 만큼 풀어낼라치면 더욱 까다롭게 굴기도 합니다. 구부러진 인간들에게 오해를 불러 주고 곧은 사람에게는 속마음을 드러내어 줍니다. 시는 내면을 노출 시키지 않고는 씩을 띄우지 못하기에 시인은 속이 깨끗하게 노출된 사람임을 보증합니다.

시는 시작 대상과 호응하고 마음을 교통하는 능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시는 광활한 세계를 흡수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논할 자격을 가졌다는 시를 논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의 시험지를 내놓기도 합니다.

시를 사랑하는 자에게 인생을 시작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동역하고 동행하여 줍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되도록 헌신합니다. 시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실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시인의 조약들의 속삭임 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눈만 뜨면 사건, 사고, 사기, 거짓,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가식 이러한 것들로 가득한 세상, 그 안에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러한 것들을 내 것으로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차라리 조금은 편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이 나마 세상으로 나가면 지옥으로 갈 것이 분명하다. 이 기막힌 일을 알기에는 하니 갈 수 없고 마치 민물고기 바닷물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일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

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 그리고 또 말씀하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2) 성도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생각을 한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출석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봉사하면 말씀과 같이 쉬게 해 주시고 자유롭게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육체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 또 자유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3일, 5일 금식기도에 들어간다. 밤낮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래도 별로 변화는 없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이 모자라 내게 도움을 주지 못

하십니까? 답답함은 더욱 커진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라는 말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으신 것을 믿지 않는 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는 아직까지 마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직



김경규 교수
에북부홍신교회 담임목사

은 사탄마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하나님께서도 예수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게 한 것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게 하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이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멸하실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사탄 마귀라는 것이다. 그때에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하시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자람과 재물을 따라 살던 사탄마귀의 추종자들은 마귀와 함께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자유케 될 것인가? 진리는 말씀하신다.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신다. 그리고 자아조차 내려놓아야 한

다. 나 자신은 없고 오직 예수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것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도, 그리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주신 사명 곧 예수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없음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도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며 그렇게 라도 쓰임 받음을 깊이 감사하는 삶속에 힘과 자유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없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 스스로에게서 되어지는 것이 참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내게로부터 스스로 되어지는 것

미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합헌 결정”

“미대법관 9명 중 찬성 5 반대 4로 통과”

결국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다.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찬성 5 반대 4의 판결로 미 전역 50개주의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20년간 이어진 동성결혼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동성 커플의 결혼권이 미국 전 지역에서 합법화 된 것이다. 이 의미는 미국내에서는 동성애자들에게 차별적인 언사나 인신공격은 전면 금지되며, 직원 채용시 성적 소수자들을 차별할 수 없으며, 교회는 동성커플이 결혼식 장소로 사용을 요구할 때 거절할 경우 차별 소송을 당할 수 있는 등 성적 소수자 차별이 전면 금지됨을 뜻한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논쟁이 있었다. 첫째는 미국 50개주 정권이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하는가, 둘째는 결혼의 정의는 각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타주의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하는가였다. 그러나 이 모두가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염두에 둔 디테일적인 논쟁에 불과했다.

동성결혼에 대한 전국화는 미국 대법원 9명의 표결로 결정이 날 운명이었다고, 결국 5대4의 찬성으로 동성결혼 전국화는 이뤄진 것이다. 인용된 법 조항은 법 앞에 평등함을 규정하는 수정헌법 14조였다. 결국 어떤 상황에도 평등함이 사회적 관례나 신앙적인 양심보다 먼저라는 것이다. 특히 이날 결정은 캐스팅

보트를 지고 있던 캐넌 대법관의 찬성이 결정적이었다. 캐넌 대법관은 “동성애자들이 평생 홀로 살아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동성결혼을 옹호했다.

성소수자들에게 차별 없는 정책을 역설해 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의 승리”라며 “평등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했으며, 백악관 주변을 비롯해 동성애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애틀,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미국 대도시 곳곳이 승리의 환호 소리로 넘쳐났다.

그러나 국민 절반이 반대한 미국의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는 않다. 이날 반대의사를 밝힌 대법관들은 이번 결정이 종교적 배경을 바탕으로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악 영향을 미칠것을 우려했으며, 스캇 위커 위스컨신 주지사를 비롯하여 쥘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

사이며 공화당 대통령 후보 등 많은 정치계인사들의 비판 여론도 무시할 수는 없는 수준이다. 결국 동성결혼 합헌 이슈는 다음 대선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사회도 극명하게 다른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인 인권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윤리나 성적인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권리와 평등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대부분의 한인사회와 교회는 이 날 판결을 놓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개탄을 금치 못한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동성결혼 문제에 강력 반대해온 교회는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에 대해 강력히 반대를 하면서도 앞으로의 방향 설정과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한 인교회가 이런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너무 등한시 하고 있었다는 자책의 목소리

도 흘러나오고 있다. 자녀를 가지고 있는 한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동성결혼에 대해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공식석상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한 미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반 총장은 2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유엔연합 채택 7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미국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어디서든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2010년 이후 동성애 이슈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 의사를 밝혀 왔다. 반 총장은 이날 ‘LGBT(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성전환자)’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해비 밀크 재단 메달’을 수여받기도 했다.

미주타임즈 다니엘 방 기자 제공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의회

한국언론부흥사협의회는 본 신문방송 단체이며 취지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원 및 개 교회, 농어촌 오지에 이르기까지 신청하시는 교회를 찾아가 지역복음화를 위해 집회를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본 단체는 총재 이효은 목사를 중심으로 건전교단의 목회자들입니다. 벌써 여러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언론부흥사협의회에 뜻을 가지신 분은 언제든지 환영하며 부흥사로 같이 뛰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합니다.

총재	대표회장	연수원장	수석상임총재	수석상임총재	수석상임총재	상임대표	부총재	부총재	부총재	실무총재	실무총재	실무총재	실무총재	실무총재	사무총장	강사단장
이효은 목사 (화성중앙교회)	조강수 목사 (영광교회)	소진우 목사 (예배교회)	박형휘 목사 (성현교회)	황원준 목사 (대신석수교회)	이규필 목사 (합동보수교회)	정기환 목사 (신문방송 대표이사)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전예희 목사 (성광교회)	정기환 목사 (전원중앙교회)	곽동훈 목사 (대신교회 부흥회장)	정대성 목사 (삼성중앙교회)	홍항표 목사 (영광교회 사무총장)	이기웅 목사 (영광제일교회)	이상중 목사 (새문교회)	곽영민 목사 (에북부홍신 대표회장)	박수영 목사 (대구행복교회)
지문	지문	지문	지문	상임회장	상임회장	상임회장	상임회장	상임회장	상임회장	실무회장	실무회장	실무회장	공동회장	공동회장	서기	회계
이병섭 목사 (한기보신 대표회장)	박한구 목사 (수도권 은목교회)	허식 목사 (경북교회 중경회장)	최순진 목사 (수목원교회)	박동호 목사 (별명교회)	최남현 목사 (신성그리스도교회)	곽애대 목사 (국제금강도원 협동)	박계숙 목사 (주성령리교회)	임해수 목사 (수원팔명교회)	임순중 목사 (문성교회)	조재호 목사 (우리교회)	이기학 목사 (포항이동대교회)	주은총 목사 (은총기도원)	박계민 목사 (안산양이교회)	김기우 목사 (은영교회)	양미상 목사 (해스 G-이루 대표)	유순욱 목사 (조계교정교회)



지저스타임즈 홈페이지 <http://www.jtntv.kr>
경기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3(대운빌라 202호)
대표전화) 070-8230-0034, 032-672-3031(팩스겸용)

대표이사:010-5468-6574, 사무국장:010-2080-0651
e-mail: jtntv@hanmail.net 웹하드: I.D-cpjkr, P.W-km1122

<http://www.dtu.ac.kr>

2015 2학기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신 · 편입생 모집안내



총장 황원찬 박사

본교는 말씀과 삶을 통합하는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주역들을 모집합니다.

석사과정	목회학석사(M.Div.)	월요특성화반	월요일, 전일제 수업	3년	00명
		주간: 화수목, 야간: 월화목		3년	00명
	사회복지(M.A.)	사회복지전공, 복지상담전공		2년	00명
	상담심리학(M.A.)	상담심리치료전공		2년	00명
신학석사(Th.M.)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기독교교육학, 선교학, 실천신학(설교, 예배), 목회상담		2년	00명
박사과정	목회신학박사(D.Min.)	목회학, 기독교교육학, 선교학, 실천신학(설교, 예배), 목회상담		3년	0명
	철학박사(Ph.D.)	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기독교교육학, 선교학, 실천신학(설교, 예배), 목회학	3년	0명
		사회복지	사회복지학 전공	3년	0명
		상담심리치료	상담심리치료학 전공	3년	0명
편입생	석사	목회학, 신학		2, 3년	00명
연구과정		목회학석사(M.Div.ep.) 및 신학석사(Th. M.)과정			00명

※ 특성화반은 주1일 수업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DAEHAN THEOLOGICAL UNIVERSITY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06번길 30
TEL 031-470-3333 FAX 031)473-5947
입시본부 031) 470-3327(010-2419-1407)
<http://www.dtu.ac.kr>